금주의 법구-〈잡보장경〉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2호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잊혀질 위기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 종단서 보존 나선다

조계종, 다비 · 가사 등 무형유산 지정 추진

다비 · 가사 · 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 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조계종 종단 차원서 보존에 나선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무형분과 회의를 열고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보보존위원들은 그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한 종목 기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정 가치를 논의했다.

보고된 종목은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로 성보보존위원들은 전부 "종단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복장 작법은 1,00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현재의 전승자들은 〈조상경〉에 정리된 화악지탁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불복장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등재도 임박해 있다.

불교 특유 전통 장례의식인 다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승가에서마저 화장장 이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다비 의례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보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도사 단오용왕재는 민간에서 전승 맥락이 사라져가는 소금단지와 용왕제를 수백 년간 전승해오고 있다는 점이, 해인사 단옷날 소금단지 묻기는 여타의 불교 의례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의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불교지화는 불교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가치가 있음을 인정 받았다. 가사는 불교와 수행을 상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가사원의 설립으로 종도들이 가사에 다가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들이 사라져 '가사 짓기'라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가사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른 의제법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서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 따른 것으로 "총무원장은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종목 추천을 받거나 자체 발굴에 나섰다. 전국 사찰에 대한 조사들도 이뤄졌다. 이를 거쳐 6개 종목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됐고, 종단 지정이 논의된 것이다.

성보보존위 회의서 논의
6개 종목 종단 차원 지정
국가 지정 문화재 추진도

"사찰은 세시풍속의 寶庫
무형유산 발굴 노력 필요"

향후 성보보존위원회는 절차를 거쳐 기존 국가 무형문화재인 연등회와 동해 삼화사 수륙재를 포함해 8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종단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다비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국가 문화재 지정도 추진한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사찰에 대대로 전승되는 풍습과 문화들은 자체가 무형 유산이 될 수 있다"면서 "종단 지정 후에도 보존 가치가 높은 무형 유산의 경우 국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찰 자체가 전승 문화를 무형 유산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은 과제"라면서 "일선 사찰에서 자체 풍습 등을 잘 살펴서 종단과 함께 보존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8월 21일 원적한 한마음선원 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의 영결식이 8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엄수됐다. 사진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 법문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깊고 깊은 한마음, 빛으로 함께 하소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8월 21일 입적… 23일 영결식

원로 · 중진 스님 등 3000여 명 참석 '애도 물결'

"열심히 하십시오, 안녕"… 생전 영상에 눈물 바다

대행 선사의 원력을 이어 한마음선원의 기틀을 닦은 한마음선원 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이 8월 21일 오후 4시 58분에 입적했다. 법랍 37세, 세수 80세.

분향소는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 마련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등 종단 원로 · 중진 스님들의 추모 물결이 이뤄졌다. 영결식은 8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엄수됐다. 전국서 모인 3000여 사부대중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혜원 스님의 생전 덕화를 기리며 고인의 입적을 추도했다.

이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혜원 스님을 추모했다. 이어 스님은 "큰 지혜는 화합이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는데 한마음선원이 이와 같다"면서 "여러분은 대행 스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한 혜원 스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적당히 살지 않고 훌륭한 족적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으나 마음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으셨으니 현시대 불자들이 그 가르침을 표상으로 삼는다"며 "이제 아무런 걱정과 시름도 없는 한마음 상적광토로 가셨사오니, 적멸의 기쁨 누리다가 오래 머물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음 주인공이 됐는지 경책해주시길 바란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혜원 스님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곳곳에서 대중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특히 영상 말미 "오직 근본자리를 믿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혜원 스님의 당부와 인사에 많은 불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은 부회장 일연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를 통해 "스님 법체는 계시지 않지만 스님이 수호해오신 장엄한 도량은 수많은 공부인들을 배출해내는 정사가 돼 청정함이 바다를 이루고, 원력은 후세에 빛나 미래 공부인들에게 영원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속환사바 하시어 한줄기 빛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안팎의 대표자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 생전 혜원 스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조사에서 "혜원 스님은 위로는 은사 대행 스님의 날카로운 채찍을 받으며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아래로는 사제들을 보살피며 한마음선원 기초를 튼튼히 다져오셨다"면서 "붙잡을 수도, 오열한다고 돌아오실 수도 없다. 바라옵건대 새 옷 갈아입으시고 속히 오셔서 못 다한 불사 원만히 이루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정연만 부회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불자들을 위해 베푸실 일이 많은데 홀연히 떠나시니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진다"며 "스님의 원적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한없는 그리움으로 스님의 공덕을 다함께 기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필운 안양 시장은 "스님은 한국불교의 기둥이자 안양시의 등불이셨다. 사바중생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춰주셨던 발자취는 안양시민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또한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조사를 통해 "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마음을 쓰고 다듬어, 내가 변하고 가족이 행복해지며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내빈을 비롯한 대중은 혜원 스님 영전에 헌화하며 마지막 예를 올렸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부주지 원행 스님, 어산어장 인묵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일연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운문사 학장 일진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 보탑사 회주 지광 스님 등 스님들과 이필운 안양 시장,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육화문중대표 정원 스님은 "혜원 스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없는 이 도량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원 스님, 신도님들과 함께 도량을 잘 보듬어 가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혜원 스님의 법구는 서울추모공원으로 이운됐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별도의 다비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연자당 혜원 스님의 초재는 8월 27일 오전 11시 안양 본원서 열렸으며 △2재는 9월 3일 오후 2시 △3재는 9월 10일 오전 11시 △4재는 9월 17일 오후 2시 △5재는 9월 24일 오전 11시 △6재는 10월 1일 오후 2시이다. 49재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봉행된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연자당 혜원 스님
추모 특집 B1~4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6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7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유교의 뜻

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간추려놓은 구절로서 간결하지만 심오하기 그지없다. 간략한 구절 속에서 유교 사상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한 서산대사의 박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천태종,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 타종법회

구인사서 제113회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도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총본산 구인사는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을 새롭게 주조, 봉안해 8월 21일 설법보전에서 타종대법회를 봉행했다.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은 높이 2.4m, 폭 1.2m 규모로 동 1200관을 들여 제작됐다. 주조는 원광식 성종사 대표(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가 맡았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타종하는 모습.

이날 참석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종단 대덕 스님 등 800여 사부대중은 대범종의 울림으로 일체중생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발원했다.

도용 스님은 "정성모아 이룩한 범종 불사의 공덕을 온 법계에 두루 회향하니, 누리에 퍼지는 청정한 타종소리 우순풍조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았구나. 불국정토 성불을 향한 대중의 발원 지극하니 연꽃 당좌에서 울리는 종성 일음이요, 원음이라. 듣는 이들 모두가 번뇌에서 벗어나며 동참 불자들 불보살님 가피 함께해 깨달음의 길에 들어 해탈의 길을 나아가라"고 법문했다.

한편 천태종은 앞서 20일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113회 정유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날 천태종은 두루마기 형태로 제작된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권자본을 부처님전에 봉정했다. **박아름 기자**


성보문화재 종합병원 첫 삽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8월 24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사진은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빈이 발파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연기

9~10월로, 출범식 준비 심혈

8월 30일 예정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의 출범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최근 회의를 통해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을 종단이 아닌 청년단체에서 주도하도록 기획 방향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미래세대위원회를 조금 더 확실하게 꾸리고, 제대로 된 출범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특히 그동안 많은 행사를 종단이 주도했지만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만큼은 젊은 세대가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면서 "청년들이 불교계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사회적 아젠다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출범식은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사 청년회 등이 기획회의 등을 거치며 준비하고 있다. 예상 출범일은 9월 말 또는 총무원장 선거 이후 2가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혼란스런 교계 분위기가 출범 연기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감 스님은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차기 총무원장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황금유대 20년… 韓中日불교 발전 모색

20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9월 6~8일 봉은사 일원서


2011년 양양 낙산사서 봉행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1995년 베이징서 열린 제1회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이 자리에서 당시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은 한 · 중 · 일 삼국 불교의 황금유대(黃金紐帶) 복원 및 발전을 선언했다. 이에 동북아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한 · 중 · 일 불교계는 삼국을 순회하며 불교교류대회를 개최했다. 베이징에서 시작됐던 불교교류대회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이에 한 · 중 · 일 불교계는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봉은사 일원서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봉행한다. '한중일 3국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한 교류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국 불교 지도자 스님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시작일인 9월 6일에는 상견례와 축하행사 및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잠실 콘서트홀서 열린다.

국민화합대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국민 화합 선언이 발표되며, 성공 기원 점등식으로 꾸며진다.

또한 대통령 영상 축사도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 이후에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곡한 교성곡 '보현행원송'이 공연된다. 지휘는 김희경 작곡가가 맡았다.

본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대법회는 9월 7일 오전 10시 봉은사서 봉행된다. 명종과 명고 타종을 시작으로 한중일 불교

'지속가능 교류 발전' 대주제로
삼국 불교 지도자 300명 운집
교성곡 '보현행원송' 축하 무대
20년 기념하는 행사 다채 진행
평창 올림픽 성공 기원 대회도

의례에 따라 예불을 모시고 세계평화를 기원한다.

오후에는 '한 · 중 · 일 3국 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 교류 발전'을 주제로 인터콘티넬탈호텔 하모니홀서 국제학술강연회가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 박영환 동국대 교수 · 이봉춘 금강대 교수가, 중국 측 부단장 밍셩 스님 · 절강성불교협회장 이짱 스님 · 부회장 위에쩐 스님 · 오대산불교협회장 창샨 스님이 참여한다.

일본 측에서는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모치다 니치유 스님 · 입정교성회 사와다 코오세이 · 카메타니 에이오 스님이 발표자로 나선다.

강연회 마지막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3국 공동선언문이 합의 체결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중에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봉은사 경내에서는 '한국불교의 미'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리며, 대회가 진행되는 호텔 로비에서는 지난 20년 대회사를 조망할 수 있는 '한 · 중 · 일대회 20년 회고' 사진전이 개최된다.

또한 한국 주최 측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 · 중 · 일대회 20년 회고집〉 〈한국불교 소개 책자〉 등을 제작 ·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대해 종단협은 "2022년까지 연달아 열리는 한 · 중 · 일 3국 올림픽 성공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기원하고 향후 삼국 불교교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제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도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선위, 선거인단 교통 · 식비 지원

중앙종회의원 율원대표 원명 스님 당선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인단의 교통비와 식비를 선관위 차원에서 지원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8차 회의를 열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관련 예산안 검토의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의했다. 이는 과거 총무원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한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결의됐다.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 후보들의 선거 중립을 지키고,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을 단절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선거인단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 교구본사별 버스 대여비와 식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예상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 관음사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비행기 이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숙박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8월 30일 발족하는 '공명선거위원단'의 선거 감시활동을 위해 각 교구별로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서 열린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율원분야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직능분야 자격심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중앙종회 사무처에 입법청원 했다.

종훈 스님은 "종헌종법을 집행하는데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혼란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직능대표 후보자를 심사하는 데 용이하도록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명상열풍, 간화선으로 이어간다

조계종 신도 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재돌입

명상 열기를 간화선 열풍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신도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 연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8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연구실무위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을 비롯해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 박희승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고명석 포교원 포교종책팀 선임연구원, 김홍근 간화선 연구소 실장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은 2003년 전국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조사에 이어 2004년 2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총 22차례 간화선 대중화팀 회의를 통해 간화선 대중화 사업을 진행했다. 조계종은 2007년 이후 어린이 선프로그램,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했으나 결국 지침서만 일반 사찰에 보급됐다. 이후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은 조계사 선림원과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3월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개선 및 보급방안 개발을 제안해 추진됐다.

6월부터 연구위 구성 및 추진이 논의됐으며, 현재 중도연기, 팔정도, 무아 및 불이 세계관 및 가치관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화두 참선을 생활화하기 위한 경전 및 선어록 공부 안내 및 심화코스 개발 등의 방향이 수립된 상태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일반사회에서는 명상 열기가 불고 있지만 정작 간화선 대중화는 주춤한 상태"라며 "보다 일반에 친숙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여 명상 열기가 간화선 열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미래 10년 준비 불교중앙박물관… '인력·홍보' 과제

개관 10주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 성과와 과제는

'불교문화 수호와 보존'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2007년 건립된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이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 숨고를 틈 없이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007년 불교문화의 발굴 보존 및 관리, 전승 등을 목적으로 조계종이 설립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인사동 거리와 창덕궁·경복궁 등 고궁,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홍포하고 대중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사회적 입지를 굳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난·약탈된 불교문화재가 환수된 후 원소장처로 돌아가기에 앞서, 임시보관 및 보존처리하는 수장고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또한 불교문화의 올바른 가치를 널리 확산시킨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일반 박물관에서는 불교문화재를 전통문화와 문화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반면,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적 해석과 가치를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단 것.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학예연구실에서 만난 관장 현조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일반문화재와는 달리 성보로서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모두 뛰어나다. 따라서 문화재로서 가치 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서도 주목해야한다"면서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에 대해 불교사적 해석과 가치평가를 곁들이는데 특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40여 성보박물관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컨트롤타워로서 작용한 점도 괄목할만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박물관협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조 스님은 "각 사찰에 소장된 불교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성보박물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종단은 성보박물관에 대한 운영 지원 뿐 아니라 소속 스님 및 학예사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불교중앙박물관은 10년간 각종 특별전 및 테마전을 개최하며, 불교문화와 대중 간의 거리를 좁히는 만남의 공간으로도 작용했다.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리적 이점, 불교문화 홍포
성보 보존관리 수장고 역할
사찰 성보박물관 지원·교육
불교문화 전문 인력 등 과제

하지만 뚜렷한 성과만큼 과제도 남았다. 현조 스님은 '불교문화 전문 인력' 및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불교문화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함양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성보박물관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에 '인력 지원'도 포함시켜줄 것을 매년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1곳에 1명의 학예사만 배치돼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본 박물관은 워낙 희귀한 유물들이 많이 소장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전공자들에게 호응이 높다. 하지만 대중에게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불교문화는 '어려운 것'으로만 남을 수 있다"면서 "일반인들이 불교문화의 정서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박물관장 현조 스님

마지막으로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이 오늘날 발전을 이룬 것은 초대 관장 스님 및 역대 관장 스님들께서 초석을 잘 다져주셨기 때문"이라면서 "1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 관장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남다르다. 앞으로는 '문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전시 형태를 도입하고 선도하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특별전 '10年×10人×10來'를 9월 14일~11월 26일 개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10年의 흐름, 다시보고 싶은 성보'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과거 전시에서 소개됐던 대표 유물들을 선보이는 테마로,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등이 소개된다.

2부 '10人, 불교미술의 꽃을 피운 장인'은 불교 미술인 10명의 작품이 전시되며, 이 중에는 1703년 의균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아미타불회도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 포함된다.

3부 '10來, 앞으로 더욱 빛날 성보'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주목되는 불교문화재가 주를 이룬다. 일연 스님이 주석하던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금속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⑦ 겸손과 친절

모든 건 下心서 비롯된다

법정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하시기에 내가 "달라이라마는 어떤 분입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참으로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했다. 달라이라마는 법정 스님처럼 언어감각이 뛰어난 분이 아닌가 싶다. 유럽의 어느 신부가 달라이라마에게 "불교의 자비가 무엇입니까"하고 묻자 "친절입니다"라고 말했다. 언어감각이 아니라 언어혁명에 가깝다.

어떤 분은 법정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참으로 겸손한 분이다'라고 평했다고 해서 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21세기의 살아 있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말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한 '겸손'은 '하심(下心)'이란 말과 동의어일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심이란 불가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내 마음을 상대의 밑에 둔다는 뜻이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 밑에 내려놓는다는 뜻이니 순도 100%의 겸손과 다를 바 없다.

달라이라마가 '자비'를 '친절'이라고 말한 바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자비란 나와 남이 한 몸이라는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나 태도이다. 나와 남이 한 몸이니 남에게 친절한 것은 나에게 친절한 것이기도 하다. 깨달음 없이는 결코 하기 쉬운 표현이 아니다.

우리나라 선방 원로스님이 어느 잡지에 달라이라마는 포교사라고 폄하하여 인터뷰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단정에 동의할 수 없다.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했다. 나와 남이 한 뿌리라는 깨달음의 체험을 하신 분이 어찌 그렇게 평가했을까 싶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수행자가 읊조리는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悟道頌)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나와 남은 물론이고 세상과 자연이 한 몸이라는



일러스트·정윤경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께서 몇 해 전에 나의 산방을 들르셨다. 나의 산방도 송광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들르셨다고 말씀했다. 스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달라이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1991부터 달라이라마를 다람살라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다음과 같은 대화 끝에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했다. 달라이라마가 "조국 티베트에서 쫓겨난 뒤에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법문을 하고 다니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을 탄압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말하자 보성 스님이 "당신은 당신을 탄압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다.

선문답 같은 말에 달라이라마가 "왜 고마워해야 합니까?"하고 되묻자 보성 스님이 "당신을 탄압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게 됐고, 그들이 없으면 용서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오"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이에 달라이라마가 크게 웃으며 서로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었다는 말씀이었다.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 차를 마시다가 '좋은 절은 친절이고, 가지 말아야 할 절은 불친절'이라고 하신 말씀도 잊히지 않는다.

생명평화법당, 범사회 문제 다룬다

'나와 사회위한 기도' 입재



그간 세월호 1000일 기도의 장으로 활용됐던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이 '나와 세상을 위한 기도'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백년대계본부·사회노동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입재식을 열고 생명평화법당을 '나와 사회를 위한 기도처'로 지정했다.〈사진〉 조계사 내 위치한 생명평화법당은 '세월호 참회와 서원 1000일기도'가 진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위한 기도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도 주제는 △8월 21~9월 10일 '한반도 평화' △9월 11일~9월 말 '세월호 미수습자를 위해' 등으로, 이후 사회현안문제를 연계해 매월 바뀐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관계자 및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회원단체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이자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종단의 현 상황을 언급하며 생명평화법당 활성화를 통해 조계사를 평화수호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생명평화법당의 활성화는 조계종에 큰 의미다. 그간 쌓인 폐습 지우고 우리가 갈 길 제대로 가게 해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계사가 한반도의 생명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성지가 돼야한다. 그러면 종단의 적폐도 자연히 사라지고 한국불교는 고무당당하게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평화법당 기도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된다.

한편 생명평화법당은 조계사 마당 정진단이 2014년 12월 23일 생명평화법당으로 간판을 바꾸면서 개원했다. 이에 앞서 그 해 9월부터는 세월호 1000일기도가 진행됐으며, 2016년 9월에는 백남기 농민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일 주 문



호흡명상 집중수련회

인경 서울 목우선원 선원장 스님은 9월 1일까지 목우선원에서 제1차 호흡명상 집중수련회를 개최한다.



마음챙김 명상 강의

마가 자비명상 대표 스님은 8월 24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강의 및 명상 실참을 지도했다.

변재덕 동국대 홍보실장 서울지역대학홍보협의회장 선임



변재덕 동국대 홍보실장〈사진〉은 8월 22일 열린 서울지역대학홍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1년간이다. 2016년부터 동국대 홍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변 실장은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총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대학홍보협의회는 대학 홍보업무 연구개발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서울지역 30여 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가입돼 있다. **신성민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 불교인 책임"

국제불교聯, 광복 72주년 평화포럼 개최



광복 72주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제불교연합이 국운융창기원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서는 스님들과 정치, 언론인들이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국제불교연합 회장 천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범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광복 7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국운융창을 기원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국제불교연합 제주지회장 영수 스님의 호국기원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대회사로 "기득권층과 약자, 소외계층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사회적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 경제활성화, 보편적 복지확대, 취업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직후 백용화 용화불교 이사장이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종광 스님이 국제불교연합 운영위원장, 법광 스님이 문화위원장, 도각 스님이 경상북도지회장, 자문 스님이 비구니회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국민 가치 공유 차원 미남불, 경주 반환해야

Interview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8월 7일 정부 및 국회 청원 보내

"불법 반출된 미남불, 돌려보내라"

靑 "바람직한 방향 찾을 것" 답변

경주시 지자체도 나서… '낙관적'

'청와대 미남불'은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바람대로 고향인 경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8월 24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앞서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을 원래 소장처인 경북 경주로 옮겨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부당하게 조선총독부로 불법 반출된 통일신라 불상이 지금도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혜문 대표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청와대에서 '종교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청와대 비서실 측에서 직접 답변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문 대표는 "청와대가 미남불 반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좋은 신호"라면서 "문화재 반환이 하루아침에 이룰 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혜문 대표는 경주시가 미남불 반환에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주문화원 · 경북정책연구원 등 경주시 범시민사회단체는 8월 23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석불좌상 경주 모시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 반출된 경주 문화재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혜문 대표는 "경주 지역에서 청와대 미남불 등 본래 경주 소장 문화재를 자신의 지자체로 되찾아 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나선 것은 여론을 더욱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앞으로 경주시측과 협력해 미남불을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지금처럼 청와대에 안치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혜문 대표는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문화재를 청와대로 들여보낼 것이냐"고 반문하며 "문화재는 박물관에 있는 것이 보존과 관리에 가장 적합하다.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모든 국민들과 미남불의 가치를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남불'이라고도 불리는 이 석불좌상은 8~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쪽 보호각 안에 안치돼 있다.

본래 경주에 있던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小平)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1927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건립되며 현재 위치로 옮겨졌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보호각이 만들어졌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어르신 복지, 지역복지로 확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25일 증축개관식 개최

목욕탕 · 황토방 갖춰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연극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을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종로구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복지를 넘어 종합복지로의 영역 확대에 나섰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5일 증축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관장 정관 스님〈사진〉은 "어르신 복지를 지역사회 복지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설 증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 문을 연 이후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축을 결정하게 됐다.

2013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약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복지관 옆공간에 수평 증축이 진행됐다. 5개 층이 증가해 복지관 전체 연면적도 4,795㎡(약 1,453평)으로 늘었다.

1층에는 경로식당과 플러스카페 3호점, 2층에는 목욕탕과 황토방, 3층에 건강상담실과 기능회복실, 4층에 공연장 종로마루홀, 5층에 장(醬)체험관 및 장 카페가 새롭게 마련됐다.

60세 이상의 종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 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목욕탕의 경우 회원은 이용요금 3000원, 차상위계층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의 경우 월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테라피시설 등 그 외 시설은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정관 스님은 "대학로 인근에 위치한 만큼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 복지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종로노인복지관의 자랑인 장나눔 봉사를 보다 활성화해 장카페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24일 가을 학위수여식

석 · 박사 1666명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보광)는 8월 24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7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22명, 석사 561명, 박사 83명 등 총 1666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이날 늦은 나이에 고졸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 학사를 졸업하고 불교학문을 연구한 김복필 할머니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신성민 기자**

청련사, 어르신들에 생계비 지원



양주 청련사(주지 해경)는 8월 22일 청련사가 소재한 양주시 장흥면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60대도 기증했다.

청련사는 지난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7 나눔캠페인' 동참과 함께 저소득층의 안과질환 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양주시어르신무료급식소 지원 및 저소득층 나눔의 쌀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상담개발원, 선사이코 드라마 회향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8월 18일 개발원 교육실에서 '선禪 사이코 드라마(Zen Psycho Drama)'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서울불교대학원대 초빙교수 효록 스님 진행으로 총15명이 참가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역할극 시연을 주로 하는 집단상담으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풀어내는 감동적인 시간들로 채워졌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오전 09:00



“불교복지로 여는 하루… 日日是好日!”

〈일일시호일〉

하태종 씨가 오전 9시 서울노인복지센터 개장 후 불자 어르신들과 함께 당구를 즐기고 있다. 하 씨는 동료들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당구 규칙을 만들어 경기를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체험] 하태종 어르신의 하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에 잠들어도 하루가 모자란 듯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게 바로 부처님 가피죠.”

무더위가 한창인 8월 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헬스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던 불자 하태종 씨(법명 태산)는 환한 미소를 띄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72세인 하태종 씨는 다음블로그 ‘마중물처럼’ 운영자이며 최근 유튜브 채널 ‘하태종’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 소개되는 하 씨의 하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봉사했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느끼는 하 씨는 또 다른 어르신 전법사의 삶을 살고 있다.

나이를 떠나 청춘을 만끽하는 하 씨의 서울노인복지센터서의 삶은 어떨까.

“센터를 찾는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불자에요. 취미도 맞고, 신행생활도 비슷하니 마음이 잘 통합니다. 마음이 편하니 자주 찾지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9시. 센터에 들어서자 상큼한 공기가 하 씨를 반긴다. 어르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탄 하 씨는 본관 3층에 위치한 당구장으로 발길을 향한다.

본관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중 당구장은 어르신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매번 잡던 큐대이지만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경쟁이 붙어서인지 오늘은 더욱 색다른 느낌이다. ‘어떻게 칠까’를 고민하는 동료 어르신에게 “쭉 밀어서 여기로 맞춰 봐요”라며 조언도 한다.

1시간 가량 이른바 ‘열공’에 빠졌던 하 씨는 큐대를 내려 놓고 서예실로 향한다. 서예교실이 있기 때문이다.

아차! 당구를 치느라 늦었다. 이 곳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를 세우고 묵묵히 먹을 갈아 붓글씨를 정성스레 써가고 있다.

서예교실은 센터서 운영하는 탑골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 탑골문화예술학교는 3년간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예술역량을 길러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곳에서 배운 서예 실력을 뽐낸 작품은 센터 내 탑골미술관에 전시된다.

조용히 어르신들 옆에 앉은 하 씨는 먹을 갈기 시작한다. 한 자 한 자 써내려 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

서예실을 나온 하 씨는 점심무렵 지하주차장을 지나 옆 건물로 들어선다. 여기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이다. 이곳엔 바둑실, 헬스장, 도서관, 요리실, 영화제작소 등 또 다른 문화공간이 펼쳐진다.

특히 영화제작소는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를 맞아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는 4차산업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VR기기 사용법 등 교육과 함께 VR영화에 대한 기획회의도 한창이다. 하씨는 기획단 소속은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 운영상 VR기기 등에 관심이 많았다.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다른 동료 어르신들이 듣는 수업을 함께 들으며 종이로 된 간이 VR기기를 써본다.

복지센터 이용하며 인생 2막
불교대학서 마음공부도 열심
“젊은 생각, 부처님 가피 덕분”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이 됐다. 센터 안과 밖은 더욱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하루에 2000여 명이 점심을 먹다 보니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조를 나눠 입장한다. 7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이 모이고 모여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한다.

급식소 옆엔 꿈나눔카페가 있어 시원한 음료와 함께 동료들과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이곳에서 하 씨는 선배다. 하 씨의 가슴팍에는 세 개의 배지가 자랑스럽게 달려있다. ‘선배시민’ ‘서울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다.

이중 ‘선배시민’ 배지가 눈길을 근다. 2기 교육생이라는 하 씨는 “하루 동안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어르신들이 앞장 서 봉사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선배노릇을 하자는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또 다른 배지는 조계사 신도배지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 영향으로 불자로 성장했다는 하 씨는 가방에서 공책 여러 권을 꺼낸다.

지난해 법륜 스님과 종범 스님 법문을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메모했고 올해는 한자 부수에 대해 공부했다. 공책들은 까만 글씨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자 하 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배움에는 끝이 없다. 지금까지 불교교리 핵심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불자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핵심을 배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답했다.

센터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한 하 씨는 조계사로 향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조계사와 500미터 떨어져 있다.

하 씨는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불교교리 수업도 듣고 있다.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눔과 자비실천의 일환이었다.

하 씨는 “물리적 봉사도 중요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마음봉사도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제가 다음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 씨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블로그와 유튜브, 센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펼쳐보인다. 하 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시니어기자단으로 관장 희유 스님 법문부터 조계사 법문, 등 축제, 연꽃 축제 등 다양한 불교계 관련 소식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었다. 블로그와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로 스님 법문과 사찰 풍경 등 다양한 글들로 넘쳐났다.

조계사를 거닐던 중 우연히 만난 딸 또래 나이의 불교대학 동기를 향해 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과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 생사열반상공화(生死涅槃常共和)를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산다는 하 씨. 하 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조계사 불교대학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마음을 되새기는데 가장 좋은 도반이라고 말했다. 나눔과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하 씨의 8월 하루는 열정 그 자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예교실에서 자신이 쓴 글씨를 보여주는 하태종 씨.



VR기획단 회의에 참여해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점심식사 후 센터 내 도서관서 불서를 보고 있는 모습.



조계사 참배 전 연꽃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일과 마무리로 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하태종 씨.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8월 1일 ~ 2017년 9월 4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국민은행 068837-04-00667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불교 차문화 세계에 알리는 기회”

명원세계차박람회 8월 24일 성대한 개막… 4일간 향연

다도 활용한 인성교육 눈길
불교계 인사 참여, 차문화 소개
스리랑카 등 해외서도 관심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불교계 · 차계 인사들이 개막을 기념하고 있다.

문화의 활성화와 차 관련 산업을 세계화를 위한 2017명원세계차박람회(이하 세계차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명원세계차박람회는 8월 24일 서울 COEX B홀에서 개막식을 열고, 4일간 축제를 이어갔다.

국내외 차 관련 전문가 한 자리에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대회장인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 조직위원장인 불교TV 대표이사 성우 스님을 비롯해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초격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희중 광주교구 대주교, 군나세케라 스리랑카 대사, 가든클럽 이집트, 브라질, 에콰도르, 일본 등 대사부인과 김종숙 한국가든클럽 회장, 권성희 한국연예인협회 한마음회회장, 심포지엄 강연자들을 비롯한 해외 귀빈, 지자체 관계자, 차 생산자 대표, 차문화교육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리차 세계화 현주소 엿봐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세계차박람회는 국내외의 다양한 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특히 불교계의 다양한 차문화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하는 명원문화재단은 우리 차문화 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기관’과 ‘교육훈련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았다. 또한 명원문화재단과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차 생산 국가지도에 차 생산국가로 표기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의정 이사장은 우리 차 문화와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차 문화의 대중화와 세계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우리의 차 문화가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각고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각박한 현대의 사회야 말로 차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박람회가 세계 차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성교육 등 다양한 테마 눈길

2017 세계차박람회는 ‘세계의 차, 내 안의 차, 우리의 차, 세계로 퍼진다’는 테마 아래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차 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된 이번 박람회는 총 120여 개 부스가 참여했다. 또 명원문화재단 각 지부들의 개성이 담긴 찻자리를 즐기는 월드티아트콘테스트도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특설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차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의 릴레이 특강과 시연 △청소년 인성교육 세미나 △세계 차 문화 심포지엄이 함께 펼쳐져 수준 높은 차 문화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세계 차와 블렌딩차 시음 △전통 다례 체험장 △서양 어린이 티파티 예절 △티베리에이션 음료체험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송필규 서예가가 현장에서 전통부채에 직접 친필로 글씨를 써서 선물로 나누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개막식과 함께 ‘제22회 명원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1995년부터 시작된 ‘명원국제차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차 문화 대상으로, 한국의 차 문화와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공로, 학술, 교육 분야로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전달하는 행사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간 총 58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명원국제차문화대상’에는 공로상에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학술상에 류건집 서산포럼 지도교수, 교육상에 김영명 경주지부장이 선정됐다.

명원세계차박람회 측은 “2017명원세계차박람회는 국제수준의 차 박람회로 전통 차 산업의 세계화의 장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불교차문화가 세계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전국 최대 판교노인 종합복지관 29일 개관

사회복지법인 ‘봉은’ 위탁 운영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봉은이 위탁 운영하는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8월 29일 개관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대지 면적 6,612m², 연면적 11,556.66m²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유일의 수영장을 갖춘 노인종합복지관이며 당구, 탁구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연습장, 기구 필라테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회 체육 시설이 마련됐다.

또한 가야금, 발레, 명심보감, 인문학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부터 인문학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가 개설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은 복지관에서 점차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 및 권익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봉은 측은 “최근 증가하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자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물리치료 및 기초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3218-4836

노덕현 기자

21년간 이어온 불자들의 기부

금강경독송회, 총 1000만원
아름다운동행 · 좋은벗들에 전달


금강경독송회 김재웅 대표가 좋은벗들에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8월 2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금강정사에서 메주, 된장, 참기름, 조청 등 전통음식을 생산, 판매한 수익금을 토대로 마련됐다.

1973년 설립, 국내외 15개 지부를 두고 있는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매일 금강경 7독과 염불 정진 및 마음살림살이 수행 덕목으로 삼고,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 50만권, 불서(마음닦는법) 180만권을 법보시 해오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유산을 알려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에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활동에 매진하여,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과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대표는 “남을 이익하게 하면서 자기도 밝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주위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래서 보살심을 연습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보살도를 닦아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1000만원씩 21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이날 아름다운동행 뿐 아니라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의 탈북 동포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대학생 포교 기구 설립 가시화

8월 19일 대불련
제15회 전국동문대회서 결의

대불련 동문 500명 참석
‘새 50년’ 비전 선포
통일발원기원도 진행



대불련 총동문회 동문들이 대학생 포교를 위한 발원을 힘차게 하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백효흠)가 전국동문대회를 열고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새로 여는 50년'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조직과 신행, 청년불자육성, 사회적 활동 등 4개 분야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0년 안에 불교 학생회 200개를 확보해 조직 기반을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8월 19일 불광사에서 열린 전국동문대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 이경수 대불련 회장을 비롯 대불련 총동문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백효흠 회장은 “불교학생회 복원과 울산지부 토크콘서트를 통해 대학생 불자들과 만나는 접점을 찾고 있으며 장학생 지원과 군 포교 지원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대학 · 청년포교와 대불련 활성화에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참석해 특별법어를 통해 “5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 시작되는 이 순간 불법의 가치관을 가슴속에 담고 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래 미래위원장은 미전 슬로건을 발표하며 “불교단체 소통장이 될 대불 동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군종병과 장병들을 대학 불교학생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조계종단, 동문회,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생 포교 활성화 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문대회에서는 회관 건립 청사진도 공개됐다. 참가자들은 차기 개최지인 강원지부에 대회기를 넘기는 회향식을 마친뒤 전등사를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무원 불자들 진제 스님과 참선법회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색다른 장이 열린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는 9월 2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대구 동화사에서 참선법회를 연다.

3일까지 1박 2일간 열리는 이번 참선법회서는 통일대불전에서의 입재법회에 이어 도신 스님 등 재능기부자의 국악 및 창 문화공연, 공불련 활성화 회의와 함께 새벽 3시까지 철야 참선 수행정진이 진행된다.

3일 오전 4시에는 새벽예불과 함께 108배가 진행되며 오전 5시 발원문 낭독과 함께 회향된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참선법회를 통한 신심고취와 불자공무원으로서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종정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게 됐다. 증장된 불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8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대승불교 교학 어떻게 응용할까

불교학연구회, 추계 논문발표회

대승불교 교학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9월 9일 오후1시부터 7시까지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대승불교 교학과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의 특징은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 4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는 점이다.

박현주(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조선후기 불교의 심성 논의에 나타난 종밀의 영향'을, 김유리(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북한의 화쟁 사상'을 발표한다, 또한 서정원(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묘승정경〉의 직자에 대한 소고'를, 이길산(서울대 박사과정) 씨는 '〈섭대승론〉 염오의 존재증명 제1증에 관하여 - 불공부병 개념을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 정희경(동국대), 김지연(금강대), 조기룡(동국대), 박기열(금강대), 안환기(서울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석탑 · 사리장엄' 강좌

통일신라 석탑과 사리장엄 등을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18일~12월 11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제50회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를 연다.

'통일신라 석탑 · 사리장엄 · 부조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통일신라기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강좌로 꾸며진다.

강좌는 △3층석탑의 발생과 감은사 3층석탑 및 찬란한 사리장치 △불국사 석가, 다보탑과 사리장치의 비밀 △전탑의 전개와 송림사 전탑 및 세계 최고의 유리제 사리기 △탑돌이 신앙과 황복사지 석탑 및 사리장치의 수수께끼 △통일신라 8세기 쌍탑의 전개와 갈항사 석탑 및 사리장치 △9세기 삼층석탑(보림사, 실상사 등)의 전개와 지방화 △통일신라 9세기 석탑의 사리장치 △백제 석탑의 계승으로 본 익산 왕궁리 석탑과 사리장엄(금판경)의 역사적 의의 △경주지역 신라석탑과 팔부중상 △통일신라 9세기의 승탑과 사천왕상 등장의 역사적 의미 △강원지역 신라석탑과 팔부중상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지속가능 발전, 불교 전통서 배우다

〈불교평론〉 '지속가능 발전과 불교' 학술심포지엄

빈곤 · 식량 · 환경 · 생명 등 사회 문제, 불교적 해법 모색
"연기적 공존 필요" 한목소리
"비우고 나누는 게 최고 대안"

현대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불교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계 학술 계간지인 〈불교평론〉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교적 지혜'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문명의 사멸과 지속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비움과 나눔'에서 시작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머지않아 사멸할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우리는 종점을 내다보며 일단 멈춰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불교의 접점을 살폈다.

"연기적 생태론을 기반한 불교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존을 추구하게 된다"고 밝힌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도 만족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불교의 교리는 무소유를 지향하고 나눔을 장려하고 이타적 삶을 추구하기에 교리상 반자본주의적"이라며 "눈부처공동체를 통해 자본주의에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누고 비우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최고의 대안으로 이 교수는 꼽았다. 그는 "서로 눈동자에서 눈부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섬겨 부처로 만들 때 비로서 나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라며 "이보다 더한 삶의 목적과 지속의 목적이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철헌 동국대 교수는 '환경위기와 생태적 사회를 위한 불교적 지혜'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대안이 불교에 있음을 대중에게 상기시켰다.

이 교수는 "인간과 동식물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다. 결국 인간은 모든 자연환경에 의지한다"며 "연기법은 공존의 원리이자 조화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태적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의복의 간소화 △채식의 생활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욕지족의 생활화 △조금 불편하게 살기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축산업이다. 사육된 동물들이 내뿜는 트림과 방귀는 전세계 메탄가스 발생의 37%를 차지한다"면서 "채식은 불교의 기본 계율인 불살생계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운동이다. 채식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한다"며 "모든 생태계가 서로 의존하고 생존함으로서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식량문제 해결의 길'을 발표한 이승숙 미르문화원 대표는 불교 전통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는 대승불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어온 채식 전통이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대안으로 주목했다. 특히 불교에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현대인에게 다른 생명과 인간을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불교가 자연계에서 인간의 특수한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인간계 내에서 개인의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불교적 태도에서 자연에 대한 수탈과 인간에 대한 착취를 제어할 사고의 단초가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성우(동국대)의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 유상호(한양대)의 '생명에 대한 간섭과 불교적 지혜' · 이찬수(서울대)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폭력과 평화구축의 길' · 박병기(교원대)의 '교육문제의 불교적 해석과 대한 모색'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南北불교, 안정적 교류 아이템 발굴해야"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 '남북 불교교류'로 석사학위

교류 20년 현황 · 문제점 조명
지속가능한 사업 고민 필요
종단 차원 로드맵 개발 제안도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금강산 신계사에서 공동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찰 복원과 같은 개발 협력 사업은 향후 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통일 사업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그간 북한 불교와 교류를 통해 통일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정치 · 군사적 갈등이 불거지면 남북 불교교류는 번번이 중단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은 '남북한 불교교류 · 협력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 사무국장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불교 교류사업을 현황을 점검하고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사무국장은 남북한 불교교류 · 협력사업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교류 · 협력사업의 행위 주체들인 남북한 불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남북 불교교류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보다 보편적 의미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산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과 △제도화 미비 △정치적 상화에 의한 종속성의 문제 등을 꼽았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박 사무국장은 공존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 교육을 전 종단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교류 · 협력 아이템을 발굴 ·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 지원으로 전환을 고민할 것으로 충고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특히 불교문화유산의 남북공동보존 및 활용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불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민간 교류 확대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교계가 나서 교류 · 협력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향후 종단 차원에서 '남북한 불교교류 · 협력 5개년 개혁'과 같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과 상생의 환경이 만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초대 문화재연구소장 업적을 기리다

경주문화재硏, 김정기 저작집 발간 학술대회

초대 문화재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창신 김정기(昌山 金正基, 1930~2015)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8월 24일 경주 드림센터 스위트 호텔에서 '한국 문화유적 조사 · 연구의 개척과 창산 김정기'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도로 고인의 고고학, 건축학분야 100여 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집성한 〈창산 김정기 저작집(전 3권)〉 완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창산 김정기 박사는 1959년 우리나라 기술과 인력으로 최초 진행된 경주 감은사지 발굴조사를 주도했다. 또한,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실의 수장부터 초대 문화재연구소장으로 역임하기까지 경주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천마총, 황남대총과 경주 황룡사지 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근간이 되는 경주 지역 중요 발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현장 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발굴왕 창산 김정기 박사와 한국 고고학 △창산 김정기 선생의 수혈주거지 연구 발표를 통해 한국 고고학사에 '발굴왕'으로 불린 고인이 약 30년 동안 전국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연구한 성과를 살펴봤다. △창산 선생의 사지 연구와 △창산 선생의 고건축 연구 발표에서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건축학사 분야에서 고인의 연구 위상을 조명했다.

신성민 기자

제7회 반야학술상 9월 10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제7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 공모는 저술과 논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9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저술상은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2년간 출간된 불교학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하며, 논문상은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철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한다. 두 부문 모두 수상자에게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참가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010)4731-3471 신성민 기자

(사) 한 국 미 륵 불 교

봉행 제2회 선조사 제례 및 법계품수 대법회

(사)한국미륵불교 법맥인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의 靈位를 모신 제례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사)한국미륵불교 법계품수와 효사랑 큰잔치도 같이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日 時 : 불기2561(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 場 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문 의 : 055)672-4394

● 1부 : 제 례 - 선조사 고암 상언 대종사 외 19위 제례 봉행
● 2부 : 법계품수 - 한국미륵불교 대종사 : 혜안스님. 행화스님
한국미륵불교 종 사 : 삼봉스님. 원봉스님
● 3부 : 孝사랑 큰잔치 - (사)가야국악단원 축하공연(민요, 가요, 춤, 장기자랑 등)

● 주최 : (사)한국미륵불교 ● 주관 : (사)한국미륵불교. 법련문도회

千佛 앉은 자리, 제국주의 탐욕으로 멍들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⑯ 베제클릭 천불동 벽화



베제클릭 천불동 전경. 협곡 사이에 흙탕물은 흐르고, 녹음이 우거져 천불동을 이룩하게 했다. 베제클릭 석굴은 원래 80여 곳이었지만, 현재 벽화가 있는 석굴은 50곳 쯤 된다.

붉은 불꽃, 이글이글 타고 있다. 불꽃은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와 쭈글쭈글 · 이글이글 정착했다. 불꽃의 땅. 게다가 산은 붉은 사암이어서 불타는 모습과 잘 연결된다. 확탕지옥에 가면 이럴까. 땡볕 더위는 숨 쉬기조차 어렵게 한다. 지열은 가마솥처럼 높아도 다만 습하지 않아 견딜 만하다. 상대적으로 땀이 덜 흐르기 때문이다. 붉은 불꽃, 바로 화염산(火焰山)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으로 만년설을 끼고 있는 천산산맥 아래에 있다. 투르판의 북녘자락이다. 해발 마이너스 저지대, 투르판의 병풍이다. 〈서유기〉의 현장이다. 인도로 불경을 가지러 가던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함께 했던 스토리텔링의 현장이다. 나는 이곳을 1988년 처음 방문했다. 서울올림픽 때이다. 당시 일기가 남아 있어 옮겨 본다.

"우루무치에서 약 190km 거리의 투르판으로 향하다.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택시를 이용하다. 사막지대임을 실감시켜 주는 좌우의 풍경들. 산세가 독특한 것도 그렇지만 나무 한 그루 없는 알몸뚱이의 민둥산들이다. 척박한 땅. 저 멀리 왼편으로 천산의 만년설이 보이고, 그 아래에 전개된 평원은 누렇기만 하다. 우루무치는 천산에서 녹은 눈이 지하수 되어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연평균 강우량 1.6cm. 물이 매우 귀한 곳.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천형의 땅이다. 중간지점에서 택시가 고장 나 2~3시간을 길가에서 우두커니 천산 자락이나 늘어지게 감상케 하고, 낙타들 먹이 찾아 떠도는 모습이나 보게 하다. 다시 투루판을 향해 달리다.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들판, 하지만 나무 한 그루 없는 빈 공간, 과연 사막인가. 포장도로는 자로 대고 그은 듯 일직선이다. 어쩌다 짐을 실은 트럭만이 지나칠 뿐 썰렁한 길이다. 시속 100km로 달려 보는 사막의 어스름이다. 보름달이 하늘을 좁게 하고, 천지는 고요할 따름이다. 아, 이렇게 황량할 수 있을까. 중간지점에서 호수를 지나다. 소금물이란다. 이곳 신강(新疆)은 소금 산지로 이름 있다. 바로 염호(鹽湖)때문이다.

투르판은 분지이다. 하루 종일 직선 길의 아스팔트를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뿐이다(면적 50147평방 km). 오아시스가 있어 마을을 이루고 있는 투르판 시(인구 20만 명)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는 빈 땅이다. 게다가 이 분지는 저지대이다. 해발 마이너스 156m, 세계적 저지대이다. 이렇게 기이한 곳에 인간의 역사와 고대 문화가 있다니, 놀랄 따름이다. 불꽃과 같은 화염산. 이글거리는 태양과 함께 경이로움을 안겨준다. 이는 고창고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폐허의 옛 도시. 흙벽돌로 쌓은 마을은 모두 무너지고, 옛사람들의 자취만 남겨놓았다.

베제클릭 천불동 계곡에 가다. 황량하고 기이한 산의 모습들. 역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다. 협곡 사이에 흙탕물은 흐르고, 녹음이 우거져 천불동을 이룩하게 했다. 깎아내린 절벽, 그 절벽을 파고 들어가 만든 석굴사원. 폐허의 문화는 텅 비어있다. 아무도 없는 베제클릭 석굴이다. 멀리서 관리인 듯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 볼 뿐이다. 나는 석굴 안에 들어갔다. 파괴의 현장이다. 전성기의 화려했을 분위기는 물론 수행승 하나 없는 폐허이다. 아름답기 그지없었을 벽화마저 마구 뜯겨 파괴되었다. 서구 '악마들'의 약탈이리라. 폐허의 석굴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베제클릭 석굴은 6세기 고창국에서 14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룩했다. 이슬람 문화가 정착하면서 불교사원은 파괴의 대상으로 가치전환되었다. 그런 베제클릭은 19세기에 이르러 약탈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1898년 러시아 학자 클레멘츠가 석굴의 존재를 발견한 이래 독일의 고고학자 르콕 그리고 그륀베델 탐험대 등은 베제클릭을 약탈의 현장으로 삼았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벽화를 뜯어갔다. 20세기 초 서구열강의 '탐험'은 역사의 현장을 폐허로 만들었고, 뒤에 문화혁명 당시 다시 한번 수난을 당해야 했다. 오늘날 런던, 베를린 등 해외의 30여 군데 박물관에서 약탈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다.

"1928년에 그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영국인 여행가 레지널드 숍버그 대령은 어떤 유적에서 폰 르콕이 프레스코 벽화 대부분을 뜯어갔다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것은 정말 신이 도우신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무슬림들이 그 뒤로 남아 있던 벽화 거의 모두를 수치심도 없이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투르크 무슬림들의 광신적인 문화재 파괴 행위에서 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베제클릭 제15굴 공양보살상. 일본 오타니 탐험대가 들여왔다 가지고 나가지 못한 것이다.

사막 석굴사원은 법열의 상징
투르판 천불동 이에 대한 증거
수려한 작품성으로 수난 겪어
日약탈 벽화, 지금 서울에 수장

나마 라도 투르키스탄의 불교 유물을 구출한 것은 전적으로 유럽의 고고학자들 덕분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른 유적에 대해서도 '벽화들이 입은 피해는 참담했다. 부처의 얼굴이 칼로 마구 그어져 있었고, 몇 안 남은 조각상들은 거의 다 파괴돼 버렸다' 고 그는 썼다. 투르판 근처의 베제클릭 대사원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중국 당국이 몇 점 남지 않은 프레스코의 보호를 떠맡기 전에 이미 광신도들에 의해 (그리고 아마 홍위병에 의해서도) 자행됐던 파괴의 현장을 증언할 것이다."

– 피터 홉커크, 〈실크로드의 악마들〉中

약탈이 아니면서 투르판 문화를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있다. 바로 우리의 서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서역 전시실에 가면 우리는 벽화를 비롯 서역문물을 관람할 수 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서역 유물이 있을까. 이는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현지에서 가지고 온 것을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남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절의 산물이다. 아주 이례적인 박물관 사례에 속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베제클릭 제15굴 공양보살상을 보자. 무엇보다 이 벽화는 현장에서 뜯기 위한 상처 즉 칼질의 선이 강하게 남아 있다. 상처를 감안하고 그림을 보면, 얼굴을 약간 들어 올려 뭔가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 표정과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합장하고 있는 자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짜임새 있고, 견고한 구성, 그리고 난하지 않게 적절하게 구사한 색채감각, 정말 걸작이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서울 소장의 '서원화(誓願畵)'는 붓다 전생에 이미 후생에 붓다가 될 것을 서원한 모습이다. 후덕한 얼굴과 풍만한 신체, 그리고 붉은 색조의 옷과 멋있는 장신구들, 이 그림 역시 걸작임을 확인하게 한다. 베제클릭 벽화의 서울 소장. 참으로 묘한 인연이다.

베제클릭 석굴은 원래 80여 군데였지만, 현재 벽화가 있는 석굴은 50군데 쯤 된다. 정말 아름다운 벽화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베제클릭이란 말은 위구르 언어로 '호화로운 집' 혹은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란 뜻이란다. 정말 아름다운 불교회화의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석굴은 대개 장방형의 구조이고, 천정은 궁륭형이다. 이들 벽화는 바탕의 회반죽이 마른 이후에 그린 세코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축축한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리는 프레스코 기법과 다르다. 세코 기법으로 붓다의 전생담을 비롯 다양한 불보살상을 벽에 그렸다. 제17굴의 본생도는 이런 점에서 흥미롭다. 벽화 소재로 불교 내용 이외 현지 인물이나 풍속 등을 그린 곳도 많다.

해발 마이너스의 투르판 저지대를 지나, 불꽃의 화염산을 지나, 무자터 강의 협곡에 이르는 척박한 땅. 붉은 열사의 대지에 물이 흘러 녹음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협곡의 녹음 덕분에 절벽을 뚫은 석굴사원들. 어떻게 이런 불사가 가능했을까. 사막의 오아시스가 생명의 상징이라면, 사막의 석굴사원은 법열의 상징이 아닌가. 석굴사원의 아름다움은 깨달음을 도와주기 위한 훌륭한 안내원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벽화. 어떻게 사막에서 이렇게 훌륭한 명품을 볼 수 있는가. 베제클릭은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약탈의 현장은 현재 폐허로 남아 있다. 뜯겨간 부분은 사진으로 대신 붙여놓기도 했다. 또 뜯긴 원화는 구미의 여러 미술관에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묘한 생각이 교차하는 장소이다. 베제클릭, 석굴이 많다하여 천불동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되었지만, 명암의 양면을 생각하게 한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日 선종 맥을 계승한 교토 대표 사찰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⑯ 도후쿠지



도후쿠지 방장의 정원 모습. 일본 사찰에서 방장이란 건물은 방장이란 선종 사찰의 조실(祖室)이나 주지실을 의미한다. 1881년 화재로 소실됐던 도후쿠지 방장 정원은 유명한 정원 예술가 시게모리 미레이에 의하여 1939년에 완성됐다.

외국 고유 명사는 발음이 비슷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교토에 있는 도후쿠지도 나라 고후쿠지와 비슷한 이름이다. 실제로 도후쿠지의 '도'는 도다이지의 도(東), '후쿠'는 고후쿠지의 후쿠(福)자를 따서 지어졌다.

도후쿠지는 JR교토역 남동쪽에 위치하며 교토역에서 나라선을 타고 가면 다음 역이 바로 도후쿠지역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후시미이나리 다이샤(伏見 稲荷大社)가 있다. 기요미즈데라에서도 멀지 않고 찾아가기가 비교적으로 쉬운 곳에 있지만, 예전에는 방문객도 그다지 많지 않은 이른바 숨은 명소였다. 그러나 요즘은 단풍 명소로 알려지면서 사진 촬영 포인트인 다리 위에는 출퇴근 시간의 전차처럼 많은 사람으로 혼잡하다.

도후쿠지는 이 연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종 사찰이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 일본과 송나라의 교역이 많아지면서 승려도 배를 타고 입송했고, 송나라에서 융성했던 선종을 배워 왔다. 일본에 처음으로 선종을 전한 요사이(또는 에사이, 榮西)스님이 12세기 후반에 두 번 입송했으며 일본에 선종을 포교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탄압도 받았지만 가마쿠라 막부(幕府)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종을 흥륭시키기 위해 진력했다. 가마쿠라시대에 요사이 스님이 선종 갈래인 임제종(臨濟宗)을 개창했고 도겐(道元)스님이 선종 갈래인 조동종(曹洞宗)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좌선을 일본에 전했다.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 중국의 5산 제도에 의하여 교토 5산으로 교토에 있는 임제종 5대 사찰이 선정되었는데 도후쿠지가 그 중 하나로 뽑혔다.

현재 도후쿠지가 있는 곳에는 원래 홋쇼지(法性寺)라는 귀족 후지와라(藤原)씨의 가문 사찰이 있었다. 10세기에 지어진 홋쇼지는 약 300년간 후지와라씨의 가문 사찰로 번성했는데 1236년에 후지와라씨 일문인 섭정관백 구조 미치이에(九条道家)가 대불을 봉안하는 불전 건립을 시작했다. 사찰 이름이 도다이지의 거대함과 고후쿠지의 성대함을 모범으로 도후쿠지라고 이름지었다. 기존 불교계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처음은 천태종·진언종·선종이란 3종 겸학 도량으로 시작했다.

불전을 건립 중이었던 1243년, 엔니벤엔(円爾弁円, 1202~1280)스님을 개산조사로 초빙했다. 그는 송나라에서 선종을 배우고 귀국한 후에 선종 사찰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며 선종을 보급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또 조정이나 막부에서도 큰 신뢰를 얻어 입적한 후에는 천왕에게서 쇼이치(聖一) 국사(國師)라는 칭호를 받아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사'라는 칭호를 받은 분이 되었다. 쇼이치 국사는 뛰어난 제자를 많이 키우고 그 중 입송한 제자가 12명이 있었다고 한다.

불전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의 높이는 15m, 대불좌우에 봉안된 협시인 관음과 미륵보살상의 높이가 7.5m로, 신대불사(新大佛寺)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대불을 봉안할 정도의 큰 규모인 도후쿠지도 역사가 있는 다른 사찰과 다름없이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거듭했다. 14세기에 잇단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그때는 복원 공사가 시작되고 불전도 재건되어 위용을 되찾았다. 15세기와 16세기에 큰 전란으로 또 피해를 많이 입었다.

日 임제종 도호쿠지파 대본산
禪堂, 日서 가장 오래된 건물
주지실 사방 정원 조성 '유일'
영고성쇠 거듭… 근현대 복원

그래도 막부나 유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가람이 수리, 복원되어 오랫동안 교토 최대의 선종 사찰로서의 면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으로 사찰 땅이 12만여 평에서 6만5천 평으로 줄어들고 70여개 있었던 도후쿠지 탑두(塔頭) 사원은 정부의 합폐사(合廢寺) 제령으로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 게다가 1881년엔 화재가 일어나 불전, 법당 등 건물이 소실되어 버리고 대불도 한 손만 남은 상태였다. 다행히 삼문(三門), 선당(禪堂) 등 무로마치시대에 지어진 건물이 화재를 면했고, 법당이면서 강당인 건물도 재건되어 1934년에 완성되었다. 옛날 지어진 고풍스럽고 장엄한 건물과 근대에 들어 지어진 건물이나 정원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후쿠지는 임제종 도후쿠지파의 대본산으로 그 위용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

칠당가람(七堂伽藍)

사찰 가람의 주요한 7가지 건축물을 칠당가람이라고 하는데 종파마다 건축물이 다르다. 선종 칠당가람은 삼문(三門)·법당(法堂)·방장(方丈)·고리(庫裏, 종무소)·선당(禪堂)·동사(東司, 해우소)·욕실(浴室) 등을 말한다. 여기서 도후쿠지 칠당가람 가운데 삼문부터 보고자 한다.

선종 사찰에서 불전 앞에 있는 문을 삼문이라고 한다. 삼문은 '삼해탈문(三解脫門)'의 준말이다. 현재 도후쿠지 삼문은 14세기에 누문이 소실된 후, 15세기 초에 지어진 것이고 현존하는 선종 사찰 삼문 가운데 일본 최고(最古)이면서 최대의 문으로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 삼문 2층에 불단이 있고 석가여래와 16나한상(羅漢像) 등을 봉안하고 있다.

삼문 뒤에 위치하는 법당(불전)이 높이 26m, 정면이 41m, 측면이 30m로 장대한 목조 건축물이다. 20세기에 들어 재건된 건물이지만 고풍스럽고 기품도 있어 주변에 있는 무로마치시대에 지어진 건물들과 잘 어울린다. 법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열반회라는 석가모니의 유덕을 칭찬하고 추모하는 법회이다. 매년 3월 14일에서 1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열반회 때는 화승 기쓰산(또는 기치잔) 민초(吉山明兆)가 그린 높이 15미터, 폭이 8미터의 대열반도가 공개된다. 석가모니의 입멸을 그린 열반도에는 많은 동물들이 모여 슬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도후쿠지의 대열반도에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열반도를 제작한 기쓰산 민초(吉山明兆, 1352~1431)는 도후쿠지를 소개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 또 일본 회화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주변 사람이 그가 선승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지만 이것을 거절해 그는 승려로서는 평생 덴스(殿司)라는 불전을 관리하는 지위가 높지 않은 일을 했으며 조덴스(兆殿司)라는 별명이 있었다. 민초의 작풍이 북송이나 원나라의 불화를 토대로 기존의 회불사(繪佛師)나 화승의 회화에서 볼 수 없는 호방한 개성과 품격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일본 회화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원래 영향력이 있었던 도후쿠지 불화 공방이 민초 이후는 도후쿠지계 외의 사찰에서도 주문을 받게 되며 선종계 불화의 중심적인 사찰이 되었다.

법당 뒤쪽은 방장이다. 방장이란 선종 사찰의 조실(祖室) 또는 주지가 거주하는 곳이고 나중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역할이 더 커졌다. 도후쿠지 방장은 1881년에 화재로 소실된 후, 1890년에 재건되었고 방장 정원은 유명한 정원 예술가 시게모리 미레이(重森三玲)에 의하여 1939년에 완성된 것이다. 방장의 동서남북에 정원이 꾸며져 있고, 정원 이름은 석가모니의 팔상성도(八相成道)에 연유되는 팔상의 정원이라고 한다. 수많은 선종 사찰 방장 정원 중에서 방장 사방에 정원을 꾸민 것이 도후쿠지 방장 뿐이다. 방장에 들어갈 때는 방장 옆에 있는 종무소인 고리(庫裏)에서 입장료를 지불한다.

법당 서남쪽에 위치하는 선당은 무로마치 시대 초기 건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선당이어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중요한 건물이다. 선당이 선승이 참선하는 중요한 곳이고 부처가 되는 승려를 선발하는 도량이라는 뜻으로 선불장(選佛場)이라는 별명이 있다.

선당 남쪽에는 동사가 있다. 동사란 선종 사찰에서 변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선당 옆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 무로마치시대 전기에 지어진 동사도 현존하는 동사 가운데 최고이고 가장 크기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찰 안내판에 의하면 당시 배설물이 귀중한 퇴비 비료로, 사찰의 수입원이 되었다고 한다.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밖에서 안을 보면 동그란 구덩이가 나란히 있는 것이 보인다.

삼문 동쪽에 동사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욕실이다. 욕실은 1459년에 지어진 것으로 1408년에 지어진 도다이지 욕실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다. 욕실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찰 안내판에 의하면 이 욕실이 물이나 땔나무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 따뜻한 물이 아니라 증기로 때를 없애려고 하는 친환경 사우나탕이었다고 한다. 동사나 욕실 훌륭한 건물을 보면 많은 선승들이 여기서 수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글·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도후쿠지 답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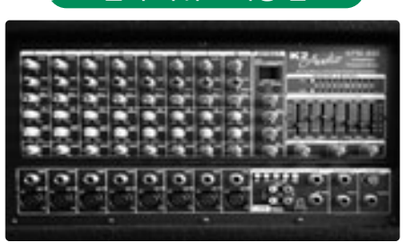


도후쿠지에 갈 때는 JR도후쿠지역 또는 게이한 도후쿠지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간다. 탑두 사원이 줄지어 있는 길을 걸어가면 와운교(臥雲橋)에 나오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통천교(通天橋)가 아름답다. 와운교를 통과한 후 왼쪽에 있는 일하문(日下門)에서 경내에 들어간다. 거기서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건물이 오른쪽에 있는 선당인데 먼저 삼문 쪽으로 가서 답사를 시작하는 것이 더 편하다.

경내에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입장료가 필요한 곳도 있다. 그중 일년내내 관람할 수 있는 곳이 통천교와 개산당(開山堂), 그리고 방장이다. 열반회(3월 14일-16일) 때는 평소에 못 들어가는 법당과 삼문 2층에 들어갈 수 있다(법당은 무료, 삼문은 유료). 법당에서 대열반도는 물론이지만 천장에 그린 운룡도(雲龍圖)도 정말 볼 만하다.

도후쿠지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탑두 사원이 줄지어 있는 규모가 큰 선종 사찰이고, 단풍 명소라는 이미지가 있다. 한국 분들에게는 신안 해저 유물로 나온 '도후쿠지 공물(公物)'이라는 물표가 떠오를 것이다. 어떤 사찰인지 한 번 답사하시기를 바란다.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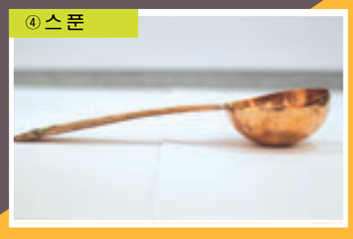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new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평생기도도 '지금 이 순간' 부터 시작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⑰ 내 삶을 바꾸는 10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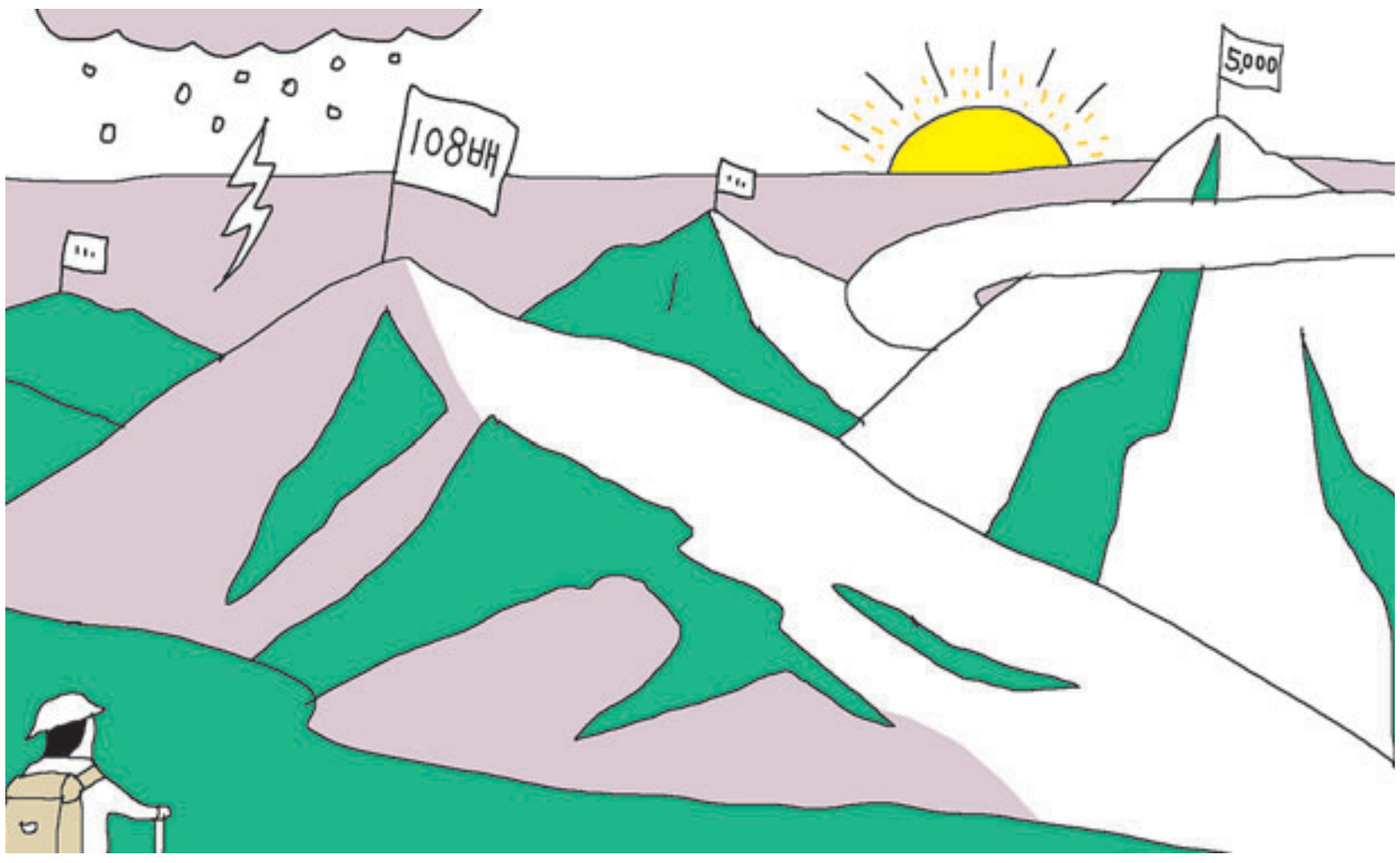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이 복잡해서 절을 시작한 딸

드디어 큰 딸애가 108배를 시작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큰애는 몇 달 전만 3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퇴사했다. 좀 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재정립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직장을 그만 두고 바로 친구와 함께 한 달 쯤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두어 달을 쉬고 나니 좀 불안해지는 모양이다. 직관력이 있고 삶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편이어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나는 별반 걱정이 없는데, 본인은 가끔 '엄마, 백수 딸 걱정되지?' 하고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백세시대라고 하잖아, 천천히 가'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108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스스로 절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애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금언이 있다. '지혜로워야 굳센 장벽을 뚫고 부지런해야 힘을 쌓을 수 있으며 마음이 고요해야 일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그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부지런하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게 없다. 108배는 지혜와 부지런함과 고요함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절을 하다보면 들뜬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는데, 지혜는 이 차분함에서 나온다. 또 부지런하지 않고는 날마다 108배를 할 수 없다. 더욱이 100일 정도 108배나 1080배, 3천배를 지속하려면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당장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절을 권하고 싶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시작해보는 것이다.

절을 시작한 딸애에게 '108 대참회문' 을 보면서 해보라고 권했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하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복잡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절만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딸아이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딸애에게 절을 하니 어떠냐고 물으니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다"고 한다. 딸아이는 대학 휴학 중에 일주일 정도 절에 머물면서 매일 1080배를 한 경험이 있다. 집에 돌아와 '절을 하고 나면 고민이 정리되는 것 같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늘 받는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렇게 좋은 걸 매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절을 계속하면 힘이 쌓이고 쌓여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다.

큰 딸애가 중학교 때, 나는 인도여행으로, 남편은 직장일로 함께 3주 정도 집을 비운 일이 있다. 공교롭게 일정이 겹쳐서 대학생인 조카를 집에 와 있게 하고 다녀왔더니, 매일 108배를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던지 마음이 뭉클했었다. 그리고 그때 '아,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밝은 에너지를 느끼고 좋은 것은 따라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다.

그때 처음 108배를 해본 딸애는 '절을 하니 마음이 편해져서 좋고, 바라던 일이 이뤄져서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는 말을 했다. 엄마 아빠가 멀리 가 있어 불안했는데 절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절을 했는데 건강히 돌아왔으니 소원이 이뤄진 것이고, 매일 몸을 움직였으니 건강해진 것은 당연한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108배의 효능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절을 했으면 할 때마다 그때 일을 상기시키곤 하면서 '엄마랑 같이 한 달만 하자, 싫으면 일주일만이라도 하자' 고 회유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처음 절을 하고 나서 정확히 절의 효능을 스스로 깨우쳤는데도 왜 계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뇌 습관 구축 21일 걸려
100회 반복에 변화시작
꾸준함이 이끄는 108배

최소한 100일에서 3년은 해야

108배를 시작한 딸에게 우선 21일 동안만 매일 해보라고 권했다. 마음 같아선 100일을 권하고 싶었지만 길게 잡았다가 하루 이틀 안하게 되면 포기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절을 해보면 무언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지속이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하긴 절수행 뿐이겠는가. 어떤 일이든 계속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 힘이 없으니 계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기도를 할 때 보통 21일이나 100일을 정해놓고 하는데, 왜 그 많은 숫자를 놔두고 21일, 100일을 하는 걸까.

보통 사람의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기간은 3주(21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행동과학자들의 이론이다.

대뇌피질에 있던 생각이 뇌간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는 것이다. 즉 21일은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정착하는 데 3주 정도가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21일에 새로운 회로는 만들어지지만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면 회로가 끊어지는 불완전한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견디고 넘어서야 새로운 습관의 회로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습관이 확실하게 형성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어떠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기까지 대외세포에 동일한 자극이나 흥분이 100회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대뇌 세포에 뻗어있는 수상돌기가 자극이나 흥분에 의해 뇌세포와 연결되고 축색주변의 수초라는 지방막까지 퍼지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쉽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적어도 100회는 반복해야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말이다.

성철 스님은 살면서 큰 장애가 나타났을 땐 최소 21일 이상 3천배를 할 것을 명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도록 일과숙제를 내주셨다고 한다. 3년은 지나야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108배 정진을 해본 사람들은 큰스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할 것이다. 하다말다를 반복하며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3년이면 백일 정진을 열 번 정도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저 뇌과학자들이 말한 100회 반복이라는 숫자도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도 약천사 조실이셨던 혜인 스님은 젊은 시절 군에 있을 때 철원 도피안사에 근무하면서 21일 동안 하루 5000배씩 정진하면서 부처님께 약속했다.

이번에는 21일 동안 10만 배를 올리지만 나이 서른이 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벼른 것이다. 그리곤 정확히 서른이 되던 해, 그 약속을 실천했다. '지금까지 절하다 죽은 놈 없고 절하다가 죽더라도 지옥은 안 간다' 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하루 5000배씩 200일 동안 정진해 100만 배를 회향했다. 남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할 만큼 말재주라고는 없었던 스님은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배 참회 절수행을 한 후 말문이 트여서(이른바 설통) 어느 때 누구 앞에서도 말이 술술 나왔다고 한다. 스님은 그 후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해외에서도 법문을 청해 와 유명한 법사스님으로 활동했다.

스승 살려낸 석남사 스님들의 21일 108배참회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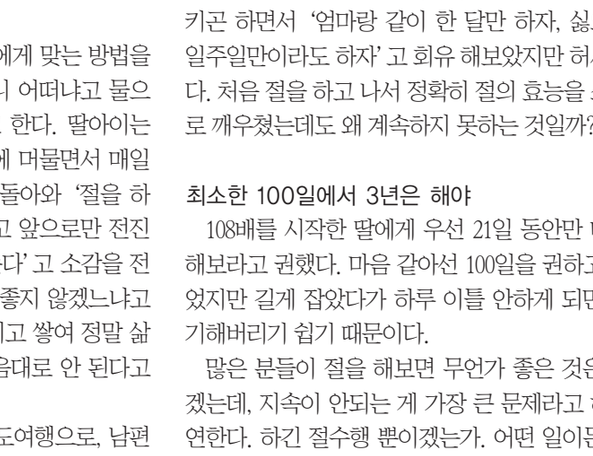
석남사에 주석하며 후학들을 이끌고 정진했던 인홍 스님을 일컬어 가지산 호랑이라고 한다. 한국 비구니의 출가정신과 정체성을 확립시킨 근현대비구니계의 대모로 수많은 후학들을 걸출한 수행자로 키워낸 분이다. 나는 스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운 바 있다. 그러한 스님이 일할 나이인 쉰일곱 살 때 덜컥 병에 걸렸다. 췌장이 곪아서 터지기 일보직전이 된 것이다. 수술을 앞둔 석남사 스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1960년대였으니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병명을 알지 못해 2개월 동안 심한 고생을 했던 터라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자신들을 위해 한 생을 헌신했던 스승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늘, 석남사에 깊은 관심과 경책을 내렸던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 사정을 들은 큰스님께선 '스님을 살려내려면 108참회와 능엄주를 하되 21일 동안 일분일초도 그치지 말라' 는 처방을 내렸다. 석남사 스님들은 회의 끝에 즉시 기도를 집전할 스님들을 16명으로 구성했다. 능엄주를 송할 스님 둘, 108 대참회를 하면서 절할 스님 둘, 이렇게 네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네 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팀이 두 시간씩 기도한 다음 팀이 교대해서 24시간 잠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얼마나 간절하고 장엄했겠는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네 팀의 스님들뿐만 아니었다. 선방의 스님들은 방선 시간에, 소임을 맡은 다른 스님들은 일을 하는 틈틈이 법당에 들어가 절을 했다. 스님들 모두 인홍 스님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 부처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소중한 정수리를 낮추어 마룻바닥에 대었다. 때는 한여름, 옴 몸에 흘러내리는 땀으로 가사장삼이 모두 젖었다.

온 도량이 염불소리로 가득한지 21일째 되던 바로 그날, 수술을 무사히 받고 빠르게 몸을 회복한 인홍 스님이 석남사로 돌아왔다. 한 마음의 힘, 정성의 힘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21일기도였다. 이를 기념해 그 후 석남사에서는 매년 1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능엄주와 108대참회로 정진하면서 하루 종일 향과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장좌기도를 하는 전통을 세웠다. 인홍 스님 또한 팔순이 넘도록 저녁예불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108배를 했다. 매년 그믐날 있었던 삼천배 정진도 빼놓지 않고 했다. 석남사 노스님들이 얼마나 신심 나게 당시의 일을 전해주셨던지 '21일 기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습관이 곧 힘이다. 그 힘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수고로움과 정성에서 얻어진다. 습관은 또 운명을 바꾼다.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 것은 없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1일이나 100일, 3년, 평생이라는 시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108배도 1배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눈딱 감고 100일기도 한번 시작해서 운명을 바꾸는 좋은 습관 하나 만드시길.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8.23~2017.8.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비밀리 전수한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

따렉 깝괸 지음 | 이창엽 옮김 | 담앤북스 펴냄 | 1만 6천원



로종(Lojong)은 수세기 동안 티베트의 위대한 불교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전수한 '마음수련법'을 말한다. 지금은 티베트를 넘어 서양에서도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책에는 로종의 7가지 핵심 가르침과 59가지 수행법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 설명이 담겨 있다. 타인의 언행이나 작은 시련에도 쉽게 부서지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마음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과 더불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르침에는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행법이 짧은 경구 형태로 총 59가지 포함돼 있다.

저자는 로종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티베트 현자들은 물론 서양의 유명 불교학자와 신경과학자까지 동원한다. 로종 가르침의 근간이 된 위대한 불교스승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과 아티샤의 〈보리도등론〉의 명구절을 소개한 것은 기본이다. 밀라레빠와 빼뛸 린뽀체 같은 유명 수행자의 어록서부터 나가르주나와 찬드라키르티 같은 불교사상가의 해설, 달라이 라마의 생생한 조언까지 두루 인용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인생 명언'으로 삼을 만한 지혜와 통찰의 말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울린다.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으려면 어디서 그 많은 가죽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죽신 하나만 신으면 온 세상을 다 덮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샨티데바)

샨티데바와 아티샤 그리고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현자들 지혜와 생생한 조언 바탕으로
'산 위에서 보는 마음'을 기르는 59가지 수행법 소개

이 책의 저자는 로종에 대해 "산 정상서 보는 관점을 기르는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산꼭대기에 서면 어떤가. 가슴이 탁 트이는 동시에 마음이 넓어진다. 산 아래에서의 작은 다툼,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 앞날에 대한 걱정이 '큰 일'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로종의 7가지 핵심 가르침은(책에서는 7개 장 제목으로 소개) 바로 '산 정상서 보는 관점과 태도'를 기르는 화두와 같다. 그 7가지는 △마음수련을 위한 준비 운동(無常과 因果 등 삶의 진실 성찰하기) △만물의 상호 의존성(緣起)에 근거, 마음의 본성 역시 공(空)함을 깨닫고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법 △분노와 두려움 없이 역경에 대처하는 법 △마음수련을 평생 유지하는 법 △마음수련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법 △마음수련 시 꼭 지켜야 하는 규범 △일상생활에서 마음수련 하는 법이다. 각각의 가르침에는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행법이 짧은 경구 형태로 총 59가지 포함돼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소나 양이 우리에서 뛰어나오듯이 서두르지 마라. 침대에서 긴장을 풀고, 눈을 내면으로 돌려 마음속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빼뛸 린뽀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집착과 남의 관점에 대한 혐오, 그것은 모두 생각일 뿐이다." (찬드라키르티)

로종의 59가지 수행법(경구) 중에서도 15번부터 마지막 59번까지 이어지는 경구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다.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드러내는 연습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법, 번뇌를 알아차리고 다루고 제거하는 법 등은 일상서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경구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면 매사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늘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불교 역사상 최대인 '돈점 논쟁' 그 진실은?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원



티베트 불교 역사상 최대의 논쟁인 '돈점 논쟁'에 대해 기존의 티베트 입장이 아니라, 돈황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국측 기록인 〈돈오대승정리결〉을 통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논쟁의 실제 상황과 중국 선종 돈오법의 진면목을 명쾌하게 밝혔다. 8세기 말 티베트에서 펼쳐진 인도 전래의 점법과 중국 전래의 선종 돈법 사이에 펼쳐진 이른바 '돈점 논쟁'은, 종래 티베트 자료에 의해 그 내용이 전해지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세기 전 발굴된 돈황문헌 가운데 중국 측 기록인 〈돈오대승정리결(頓悟大乘正理決)〉이 발견되면서 돈점 논쟁의 해명과 진상을 추구하는 세계 각국의 연구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 논쟁에 직접 참여했던 인도 점법 승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도 선종의 돈법 이해에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사실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돈점 논쟁에서 중국측 대표 선승인 마하연 화상이 승리한 셈이지만, 티베트 왕실의 불교정책에 따라 티베트의 기록들은 대론의 실제적 문답 내용을 거의 대부분 기록하지 않고, 인도승과 티베트 국왕 등이 돈법을 비난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기술하고는 마하연 화상의 답변과 해설은 거의 싣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진실로 알던 티베트 쪽의 기록은 사실상 반쪽짜리 기술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1세기 전 발굴된 돈황문헌 가운데 중국 측 기록인 〈돈오대승정리결〉을 토대로 돈점 논쟁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전체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서론서 티베트 돈점 논쟁 전체를 개관하고, 중국측 대론자인 마하연 선사의 생애와 그가 티베트불교에 끼친 영향을 서술한다. 이어서 마하연 선사가 지닌 선법의 핵심 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 자료에 기술된 돈점 논쟁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동시에 인도측 대표인 연화계(까말라씰라)가 마하연 화상을 비판한 내용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돈오대승정리결〉 전문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번역한다. 또한 돈점 논쟁의 실상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돈황문서 중 마하연 선사의 다른 법문들을 모아 일일이 번역 해설했다. 아울러 마하연이 활동한 시기에 이미 상당수의 선종 법문들이 티베트에 전해지고 수습됐음을 증명하면서 돈법의 정당성을 역사적 맥락에서도 도출한다. 부록에는 중국 선종의 여러 선가(禪家)서 설하는 돈법을 회통하는 몇 소논문들을 첨부했다. 이 책을 통해 돈점 논쟁의 진정한 결과와 그 배경을 파악하는 과제도 소중하고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하연 선사가 설파한 돈법을 어떻게 올바로 깊이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선종을 표방했고, 그 선종의 꽃인 행법이 바로 돈법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라 할 수 있는 돈법과 점법에 대한 인도측과 중국측 양자의 논쟁에서 두 가지 입장이 뚜렷이 대비되는 까닭에,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논쟁의 자료들은 대승불교의 수행 전체에서 선종의 돈법이 지니는 위상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책이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교수행서 돈법의 근거와 내용을 자세하고 깊이 해설함으로써 독자들이 돈법에 대해 가능한 한 온전하고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저자가 보기에, 종래의 연구들에서 가장 부족하고 미진한 면이 바로 돈법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결과 이 논쟁의 진상과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대승불교가 서역과 동아시아에 전해져오면서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가장 융성한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나라를 꼽자면, 당연히 티베트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두 나라의 불교는 불교사 전체에서도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그리고 두 나라는 8세기 말의 돈점 논쟁을 거치면서 서로 상이한 불교수행체계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돈점 논쟁에서 나타난 점법과 돈법에 대해 그 차이점과 위상, 의의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불교수행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꼭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요구에 부합한다.

김주일 기자

용어 해설서 시작하는 〈반야심경〉 강설

제법공상의 이해와 수행

원공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원



우리가 흔히 〈반야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의 완전한 명칭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이다.

마지막 두 글자인 심경은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뜻이다.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에 대하여만 설(說)하신 대품의 600권 반야경(般若經)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함축적인 경전이다. 이런 까닭에 비록 짧은 경전이지만 초심자들이 그 내용이나 경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등장하는 용어의 난해함이다.

오온(五蘊),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 등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또 이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기나 공, 중도의 논리를 잇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바로 용어 설명이다. 육근, 육경, 육식, 아뢰야식, 진여, 오온, 사성제와 십이연기차제에 이어 마지막에 수행 방법까지 이어지는 용어 해설은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반야심경 어려운 이유…
평소에 생각치 않았던 견해 때문

이 책서 두 번째로 치중한 것은 반야심경이 설파하는 '견해'이다. 이 책에서는 '더 알아보기'라는 장으로 처리돼 있다. 그런데 그 견해를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수행으로 모아진다.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제시한다. 부처님이 그 방법을 수차례 드러낸 삼십칠조도분법으로 시작해 비파사나, 사마타, 삼바발제, 선나까지.

저자는 견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행을 통한 '체득'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숨을 관찰하는 호흡서 시작해 몸을 관찰하는 방법까지. 초심자가 실천할 수 있는 수행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여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대중 눈높이서 쉽게 해설한 반야심경

이 책은 스님이 수차례의 강연과 법회를 통해 신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 하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신도들이 전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필요한 경우 여러 개념을 표로 풀어놓거나 정리해 놓고 있기도 하다. 불교신자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반야심경. 그 여러 권의 반야심경 중 꼭 소장해야 할 목록에 들어 있는 책이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음악아카데미는 8월 21일 지도사용 반주음원 및 교재를 출시했다. 이날 출범한 '동국대 힐링코러스 합창단'이 <지도사용 교재>에 따라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쉽게 가르치고 부르는' 찬불가 음원·교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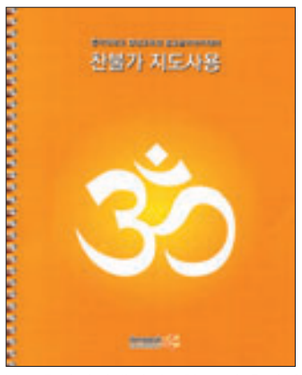
불교음악아카데미, 지도사용 반주음원 및 교재 최초 발간

법당 한편에 놓인 피아노. 과거에는 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 의식곡을 부르는 풍경이 익숙했지만, 불교 음악인이 절실히 부족해진 요즘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피아노를 찾는 것이 더 쉽다. 소규모 사찰 중에서는 1년에 한 번 뿐인 부처님 오신날에도 반주자를 구하지 못해 무반주로 봉축법요식을 올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 가운데 일선 사찰에서 찬불가 지도를 하고 싶어도 피아노 반주자를 대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대표 강형진)가 찬불가 반주음원과 교재를 내놨다.

불교음악아카데미는 8월 21일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계 최초 지도사용 반주음원 및 교재를 출시했다. 이는 반주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찬불가 지도 또는 배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단체 및 사찰들을 위한 것으로, 찬불가의 보급과 대중화가 주목적이다. 특히 음악 전공자가 아닌 일반 불자들을 위해 음역대를 조정, 편곡해 출시된 첫 음원 및 교재여서 더욱 주목된다.

불교음악아카데미는 "대부분의 기존 찬불합창곡집은 성악가들의 음역대에 맞춰 발간됐다. 이에 본 단체는 신도들이 부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편곡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불교음악아카데미 4기 교육생 전동휘 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평소 음악에 애착이 컸던 전 씨는 불교에 입문한 후에도 찬불가에 깊이 매료돼 일선 사찰에서 찬불가를 지도하고 싶었지만 반주시설이 없었다는 것. 이에 전 씨는 직접 녹음한 음원을 신도들에게 들려주며 찬불가 음성공양에 매진했다.



불교음악아카데미가 8월 21일 출시한 불교계 최초 지도사용 찬불가 교재.

불교음악아카데미는 이를 이어 받아 일반 불자 지도를 위한 음원 및 교재 발간에 착수했다. 1기부터 7기까지 전 교육생이 십시일반 모연에 동참했고, 음원 녹음 및 편곡도 독자적으로 완성했다. 불교음악아카데미는 "모든 과정에 교수들과 출재가를 막론한 불자 동문들이 동참했다. 그야말로 '불교 음악 공동체 마을'을 형성한 것"이라면서 "이번 출시로 불교음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악 전공자 아닌 일반 불자 위해
음역대 조정·편곡한 첫 시도 주목
전 교육생 음성공양 십시일반 동참
"향후 2·3권 시리즈 발간 계획도"

음원과 교재에는 '삼귀의' '보현행원' '사홍서원' 등 의식곡 6곡과 '고운 님 잘 가소서' '붓다의 메아리'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연등'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20곡이 수록됐다. 곡 선정은 불교음악아카데미 교수 및 회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가장 인기 있는 곡을 1위부터 20위까지 선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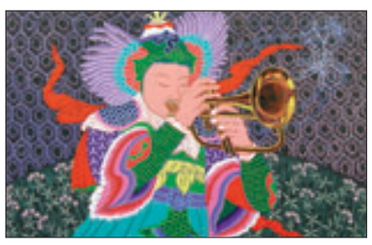
반주음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DS audio'를 다운로드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불교음악아카데미 교육생 및 졸업생들에게만 ID와 비밀번호가 공개된다. 이번 교재는 총 500권이 제작됐으며, 악보에는 기타 코드도 함께 실었다. 향후 수록곡수를 늘려 2권, 3권 등을 연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강형진 대표는 "재즈면 어떻고 클래식이면 어떤가.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음원 및 교재 발간도 일반 불자들을 위해 기획했다. 따라 부르기 쉽고 편안한 찬불가를 보급함으로써 불교음악이 다시 한 번 부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음악아카데미는 이날 '동국대 힐링코러스 합창단'을 출범했다. 교육생 및 졸업생 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호스피스병원·복지관·군부대 등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사무량심의 悲, 소리와 실로 표현하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이김천·달분 작가 초대전
'사무량심-비(悲) karunā' 9월 14일까지



이김천 作, 꽃이핀다, 41x61, 무명천·실, 2016



달분 作, 붓다의 손, 192x132, 한지에 아크릴 채색, 2008

불보살의 4가지 자비심 자(慈)·비(悲)·희(喜)·사(捨)를 뜻하는 사무량심 중 '비'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이김천·달분 작가 초대전 '사무량심-비(悲) karunā'를 9월 14일까지 갤러리 까루나에서 개최한다.

이김천 작가는 '소리를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다. 1995년 첫 개인전 이후 지난해까지 3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단체전 100여회 및 아트페어 기획전 50여회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달분 작가는 직선으로 곡선을 그리는 '실그림 작가'로 알려져 있다. '붓다의 손' 등 작품이 대표적이며, 2016년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불교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번 전시의 주관을 맡은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앞으로 4번에 걸쳐 자(慈)·비(悲)·희(喜)·사(捨)를 주제로 릴레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이번 전시는 '우리집 부처님'이란 큰 흐름으로 작가들이 가정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작품을 작업하는 것"이라면서 "재가자들은 집에서도 각자 생각에 맞는 불교미술작품을 소장해 신행 및 수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 까루나는 비로자나국제선원 1층에 위치한다. 지난 7월 홍제동에 새 도량을 건립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1층에 갤러리와 카페를 열어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다.

초대리셉션은 8월 30일 오후 6시 열린다. 이김천 작가의 음악과 달분 작가의 시낭송이 어우러진 시간으로 마련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장경문화축전 D-50, 620여 년 전 이운행렬 재현

해인사·합천군,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50일 앞두고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을 재현한다. 합천군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8월 31일 오후 5~8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및 동성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운행렬 재현행사는 1398년 5월경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하고 있던 팔만대장경을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온 당시 장엄한 행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대장경 1000년을 기념해 서울 인사동에서 처음 시작돼 2013년 부산 남포동에서 2번째 축전이 열린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취타대를 선두로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60여 스님들이 향로, 인로왕번, 오방불번 등을 들고 앞장서며 500여 참가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뒤를 따른다.

한편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10월 20일~11월 15일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및 해인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아름 기자

다문화 함께하는 보덕사 호수음악제

9월 10일 오후 3시 경내 특설무대서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제10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경내 특설무대에서 연다.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1부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성금 및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된다. 이어 2부 본식, 3부 호수음악제가 열린다. 호수음악제에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성은, 바리톤 박성준, 소프라노 김나희, 가수 진수영·우연이, 밴드 사랑과평화 등이 무대에 오른다.

보덕사 주지 정안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당진 시민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음악을 통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당진시가 더욱 화합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 010-9471-202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자암 이야기

사자암 대중을 소개 해야겠다. 먼저 사자암의 부지런한 머슴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트기 전에 법당과 종각, 삼성각, 주지실의 마당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청소한다. 잡초도 뽑고 모노레일의 레일 주변의 웃자란 대나무, 칡넝쿨, 풀도 낫으로 깎는다.

장마철에는 등산로의 물길도 고치고 도랑의 곳곳을 살펴 손질 하는걸 즐긴다. 진돗개와 고양이의 먹이 챙겨주기, 물그릇 씻어 물 바꿔주기도 그의 몫이다.

거기에 비하면 공양주의 할 일은 한가로운 편인데 끼니때마다 뜨신 밥으로 상 차리는 것, 가끔씩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봉지커피로 대접하기, 과일은 각자가 알아서 셀프로 깎아 먹기 등이 그의 할 일이다. 양말, 수건, 내의 등도 하루에 한차례씩 세탁하는데 세탁은 보조 공양주인 드럼세탁기 담당이다.

사자암 주지는 성질이 지랄이다. 성격이 급하여 불칼이다. 똥고집에 자기주장이 강하여 '일통'이다. 일통을 친절히 설명하자면 '일방통행'의 준말이다.

사근사근하고 부들부들하면 신도들이 오죽 좋아하랴! 그러나 사자암 주지는 직설적이다. 목소리도 크다.

사자암의 새벽예불은 두시로 정해져있다. 새벽잠 없는 늙은이가 새벽명상을 즐기며 시력도 좋아 바늘귀에 실을 꿰어 새벽 바느질을 좋아한다. 염불대신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데 음정 박자가 자유롭다.

혼자서도 잘 울고 혼자서도 잘 웃는다. 법당에는 주지 방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가 누구이든 맞절로 맞이한다. 생일은 잊은지 오래 이고 신도들과 어울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긴 하나 지역 기관장들에겐 이유있는 회초리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市長)을 사자암으로 불러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사찰의 당면과제를 거뜬하게 해결한다. 사자암에서는 권선문 따위를 키우지 않는다. 오줌 누는 일과 물 마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며 자기불공, 기도는 본인이 목탁 치며 절하며 해결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신앙은 자유와 행복 누림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진리의 등불, 마음의 등불로서 스승삼아 머묾과 소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해탈(解脫)이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며 기본에 충실해야할 보편타당한 일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 되어 주술적, 신비로운 존재로 거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신앙은 열려 있어야 하고 진리는 드러나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주지 소개 부분이 옆길로 길게 나가 눈살 찌푸리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사자암의 머슴과 공양주, 주지가 셋이 아닌 한 사람이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한사람을 나누면 셋이요 모으면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자암 주지는 자격증은 없으나 요리솜씨는 제법이다. 미역국에 치즈 두 장쯤 넣어 끓이면 곰탕 미역국이 된다. 맛도 좋다. 부침개 만들 때는 밥을 서너 숟갈 넣어 부치면 맛이 쫄깃하고 식감이 좋다.

목탁쳐도 귀신이 올 리가 만무
생각 바뀌고 마음 열리길 바랄 뿐

남은 밥으로 누룽지 만들 때는 치즈 조각을 곁들이면 누룽지가 한결 구수하고 맛이 좋다. 전기밥솥에 찰밥을 지을 경우에는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린 후 주걱으로 밥을 뒤집고 보온버튼을 누르면 맛있는 찰밥이 된다.

라면을 끓일 경우 후레이크와 분말스프를 넣지 않고 끓여보자. 충분히 익힌 면을 국물 없이 건져내 그릇에 담아보자. 오이채와 김치를 잘게 썰어 고추장하고 비비면 맛좋고 개운한 비빔면이 될 것이다.

사자암 주지는 생긴 대로 행복하다. 누가 있든 없는 말도 행동도 꾸미지 않고 걸림과 머묾 없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탁 쳐서 귀신이 올 리 없다며 진솔한 신앙상담을 즐긴다.

사자암 주지가 법당에서 법문할 때는 누구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경청한다. 두 다리 길게 뻗고 법문 듣는 청중들이 늘고 있다. 사자암 주지는 법문 후 끝장토론을 즐긴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어 진리와 하나이루길 온 몸으로 설법하고 있다.

조사선의 우월함을 외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구산선문의 개산조 가운데 범일(梵日: 810~889) 국사는 사굴산문을 열어 그의 독특한 선관(禪觀)을 내세웠다. 그는 특히 진정한 깨달음은 조사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뒤 진귀조사(眞歸祖師)를 만나 깨달은 것이 진실한 깨달음으로 이것이 바로 조사선의 경지이다"라고 말했다.

진귀조사설은 선의 원류를 석가모니에게 두지 않고 진귀조사에게 두고 석가모니가 진귀조사에게 선법을 전해 받았다고 보는 설이다. 이는 조사선의 우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조사선의 종지를 당시의 우리나라에 새롭게 천명하고자 한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진귀조사설은 〈선문보장록〉에 나오는 이야기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도 히말라야에 있는 진귀조사를 찾아가 선을 전수받았다는 것으로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선종의 우월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사선이란 말 자체도 〈조당집〉에서 쓰기 시작한 말로 여타의 경론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또 진귀조사설를 내세우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용모를 지녔던 범일은 부처님의 상호 가운데 하나인 정상육계상이 있었다 한다. 15세에 출가할 뜻을 자지고 절에 와 20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흥덕왕 6년(831년) 입당 유학의 원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마침 왕자 김의종(金義琮)이 배를 타고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적에 그 배를 타고 함께 당나라로 들어갔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지식을 참방하던 중 염관제안(鹽官濟安)을 친견하였다. 염관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동국 신라에서 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왔는가? 육지로 걸어왔는가?" "바다도 건너지 않고 또한 육지도 밟지 않고 왔습니다." "두 길을 다 밟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와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발로 밟지 않으나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답을 하고나서 염관이 범일을 동방의 보살이라고 칭찬하였다. 범일이 또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루어 부처될 수가 있습니까?" "도란 닦을 것이 없는 것이니 다만 자성(自性)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부처라는 견해나 보살이라는 견해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평상심이 곧 도이다."

이 말에 범일은 다시 크게 깨우치고 염관의 문하에서 6년을 정진하였다. 그 후 또 다시 제방을 순력하다 약산유엄(藥山惟儼) 선사를 찾아갔다. 유엄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강서의 마조 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가?" "스님을 친견하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스님께서 다시 일보를 전진하시면 되지만 저는 화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약산도 범일을 칭찬하였다.

마침 무종(武宗)이 파불(破佛)을 저지른 회창사태(會昌沙汰:884년)가 일어나 한동안 피신을 하면서 산속에 숨어 선정을 닦았다. 그후 소주(韶州)로 가서 육조 혜능의 탑을 참배했는데 학이 와서 울고 하늘에 오색의 서운(瑞雲)이 나타났다고 한다.

문성왕 9년(847년)에 신라로 귀국하였다. 명주(溟洲) 도독(都督)의 청에 의해 굴산사로 가 40년을 조사선법을 진작하였다.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의 세 왕으로부터 존숭을 받았고 887년에는 진성여왕이 어례(御禮)를 갖추어 국사로 모시려 했으나 끝내 국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범일의 법을 이은 대표적인 제자에는 개청(開淸), 행적(行寂) 등 10대 제자가 있었다. 이리하여 사굴산파가 흥성하여 보조 국사 지눌에까지 이어진다. 사굴산 지역의 풍습 가운데 대관령국사서낭신의 제사를 해마다 단오날 모시어 왔는데 범일 국사를 서낭신으로 신격화 하여 모시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이는 신라왕족 가운데 강릉김씨 시조가 된 김주원의 자손들이 같은 강릉김씨인 범일을 정신적 지주로 받들다가 점차 민간에 그 영향이 커져 서낭신으로 숭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무량심서 중생과 보살이 나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⑧ 사무량심이란?

菩薩於一切眾生等生悲心。然於惡行眾生倍生怜愍。譬如大富長者唯有一子愛念之心徹於骨髓。菩薩愛念一切衆生亦復如是。如有惡子不欲父得勝己事者是名背恩。一切怨憎眾生於菩薩所同一味惡。菩薩於怨憎人生同一味悲心。世間眾生得報恩者生其歡喜。若菩薩於怨憎人所與其利樂。心生歡喜倍過於是。世間眾生若罵時他不還報便大歡喜。菩薩得他罵時心大歡喜。有愛心者於三界中悉皆普遍。菩薩悲心亦普遍三界。菩薩悲地獄眾生不如悲愛著三界愚癡眾生。眾生樂於己樂㗴無量大苦之所繫縛。菩薩㗴利他樂故㗴無量大苦之所繫縛。一切眾生皆同一事。皆欲離苦得樂。與他利樂㗴勝有㗴。利向己者亦是悲因亦是喜因。㗴利向他者見之生於悲喜。自㗴己利所以生悲。見其得樂所以歡喜。四無量心者內心欲修緣。四攝法者㗴眾生利樂名㗴最勝。修四無量者能與世法及出世法。因世法出世法及四無量心都是同一境界。何以故。同一利益眾生。同得一無上菩提果故。悲者能利他。智者能捨。不生希有心。不生高下心。

번역 |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자비심을 내며 악행 중생은 배나 불쌍히 여기는데, 비유하자면 큰 부자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듯 보살이 일체 중생 사랑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데 나쁜 자식이 있어 아버지의 사업을 잇지 않을 것 같으면 은혜를 저버렸다 합니다. 일체의 원망과 미움은 중생이나 보살에게나 동일한 맛의 악이지만 보살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맛의 자비심을 냅니다. 세상의 중생은 보은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만약 보살이라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며 마음에 즐거움을 내되 배나 더하며 세상의 중생이 만약 욕을 해도 되갚지 않고 크게 기뻐합니다. 보살은 남이 욕해도 마음에 크게 기뻐하나니 애착심이 삼계에 어디든지 보편적인데 보살의 자비심도 역시 삼계에 두루합니다. 보살의 자비는 지옥 중생의 슬픈 애착과 삼계의 어리석은 중생과 같지 않나니, 중생의 즐거움은 자신만의 즐거움으로 무량한 큰 고통에 얽매이고 보살은 이타심의 즐거움으로 무량한 고통에 얽매입니다. 일체 중생들이 한결같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바라지만 이타심의 즐거움이라야 수승하다 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익이 또한 슬픔의 원인도 기쁨의 원인도 되는데, 타인을 향한 이익은 자비의 기쁨이 생기며 자기만의 이익은 슬픔이 생기는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이란 내심 수행하려는 인연이며, 사섭법(四攝法)이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이니 가장 수승합니다. 사무량심을 닦는 이는 세간법으로 출세간법에 이르나니 세간법으로 출세간법과 사무량심에 이르는 원인이 모두 동일한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중생을 이익케 하며, 같이 위없는 보리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이타심이요, 지혜란 능히 버리는 것이니 특별하다는 마음도 내지 말고 높고 낮은 마음도 내지 마소서.

해설 | 사무량심(四無量心)이란 사범주(四梵主)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이타심을 이르는 말이다. 네 가지 이타심이란 자비희사(慈悲喜捨)에서 자(慈)는 사랑하는 마음이자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비(悲)란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며, 희(喜)는 남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며, 사(捨)란 자신의 애착을 버리면서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다. 출가자나 속세의 이들이나 세속법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출가자는 세속법에서 출세간법에 이르고, 거기서 사무량심을 내는 이들이다. 출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의 인연을 짓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보살과 중생이 갈린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련, 관욕(기초부터 시작)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출재가 불자의 필독서
만해 한용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강의
백년 전 주창하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개혁정신, 지금 바로 필요한 시기!!!
삼국시대 이래 1700년을 이어온 불교가 불자의 감소로 제1의 위치를 상실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는 요즘, 한국불교가 개혁 없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군소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백 년 전에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저술입니다.
한국 근대불교를 깊이 연구한 혜룡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함께 고민해봅시다.
혜룡스님 약력
· 해인사 지족암 故 일타 큰스님 제자로 출가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수료 (한국 근대불교 개혁운동 연구)
·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에서 강사,학감,교무국장 등 역임
· 現 부산 센텀일심사 주지
교육대상자 :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불자 (출가자, 재가자 누구나 가능)
개 강 일 : 9월 6일
교 육 기 간 : 8주(2개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강의 시작
수 강 료 : 10만원 (교재비 포함)
수강료 입금 안내 : 부산은행 101-2049-8065-05 센텀일심사 이경미 ,9월 3일 이내 입금 요망
접 수 문 의 : 센텀일심사 051)781-054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반야참회(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강의 안내
반야참회는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으로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8월 29일부터 3개월간)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별도)
대한불교조계종 센텀 일심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전화 051)781-054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anyadMeeting

원각사 반산 스님, 수행환경 수호 '단식 돌입'

8월 22일 기자 간담회서 "목숨 걸어 도량 지킬 것"

양산시 '석계산업단지' 개발로 소음·분진 등 도량 피해 발생
"市, 피해보상 약속했으나 무시" 사찰 기능 마비로 이주대책 촉구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원각사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단식으로 투쟁하고 소신공양도 불사할 것"이라며 양산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산 통도사 말사인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이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반산 스님은 8월 22일 통도사 산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소신공양도 불사할 것"이라며 "힘없는 수행자가 부처님 도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원각사는 현재 양산시가 추진하는 석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다. 석계산업단지는 양산시와 태영건설, 경남은행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인 ㈜석계산단이 2018년 6월까지 2,190억 원을 들여 상북면 석계리 일대 84만㎡ 부지에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석계산단은 127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전기와 전자, 기계업종 등이 입주한다.

문제는 석계산업단지 진입로 4차선 노선이 원각사로부터 20m 거리에 인접, 안전 위협은 물론 발파 작업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 사찰 균열 등을 일으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찰 뒤 천성산 수목이 벌목돼 지역민들을 위해 '힐링 장소'의 역할을 했던 산사의 기능마저 마비됐다.

반산 스님은 "공사에 앞서 진입로 노선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노선 변경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부실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양산시청 회의실에서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김용기 문화관광과장, 서양우 석계산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원각사 피해 보상 합의 사항을 약속 받았으나 지금은 침묵과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산 스님은 그동안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석계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원각사 수행환경 수호법회'를 진행하며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반산 스님은 7월 25일에는 양산시청 앞 공터에 시위용 천막을 설치했지만 강제 철거를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또 8월 16일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반산 스님은 "천막 철거 당시 양산시는 '그동안 행정 운영 중 천막 시위는 관례에 없었다. 봐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폭력적인 철거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양산시의 태도에서 힘없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수행도량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공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법부에도 노선변경과 약속 위반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제시했지만 힘없는 사찰의 편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원각사의 이주를 요청했다. 스님은 "수행 및 힐링 도량으로서 원각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이주만이 답"이라며 "원각사 뒷산인 천성산은 마구 파헤쳐졌고 사찰로 연결된 수행환경은 모두 파괴됐다. 1979년 그 이전부터 마을 주민의 쉼터였던 원각사는 통도사 말사로 부처님 도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일심사 "기복신앙 벗어난 성숙한 불자 양성"

8월 19일 은해사 부산 포교당 일심사 개원법회


일심사는 8월 19일 법당에서 '센텀 일심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부산 포교당 센텀 일심사가 문을 열었다. 주지 혜룡 스님은 앞으로 반야 참회 수행으로 기복신앙을 벗어난 성숙한 불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조선불교유신론' 강의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을 불자들과 함께 짚어보고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심사(주지 혜룡)는 8월 19일 법당에서 '센텀 일심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조계종 종단협 사무처장 성공 스님, 은해사 7직 소임 스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원 법회는 주지 스님의 인사말과 돈관 스님의 법문, 성공 스님·윤원철 교수·김종화 이사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돈관 스님은 "시대에 따라 종교가 변해야 한다.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포교당을 연 혜룡 스님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며 "인연을 통해 부처가 되고 악인이 된다. 혜룡 스님과 일심사와 인연이 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혜룡 스님은 "일심사는 불교 신행의 기초를 다지는 곳으로 참회불교운동을 통해 뿌리 깊은 신심을 정착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아울러 불자들이 현대사회 속 불교의 역할과 바른 자세를 알도록 사회문제와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도량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앞으로 일심사는 반야참회와 조선불교유신론에 대한 정기 특별강의를 연다. 반야참회는 불교신행의 기초인 참회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참회법으로 수행한다. 혜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수행법을 지도한다. 반야참회 강의는 8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이며 3개월간 진행된다.

조선불교유신론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다. 9월 6일 개강해 2개월간 진행된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백년전 조선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저술이다. 주지 혜룡 스님은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불교 개혁운동가를 연구했다. 이 강의를 통해 혜룡 스님은 현대불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일러준다.

이외 불교입문자를 위한 기초교리 강의, 토요법회 및 저녁 법회 등도 진행한다.

혜룡 스님은 해인사 지족암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를 수료했다. 하동 쌍계사 강사 및 학감, 교무국장을 역임했으며 구례 화엄사 강사, 학감을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포교사회, 다양한 日曜 포교 '눈길'

서병수 부산시장 초청 특강 '부산의 글로벌 미래 제시'



금정총림 범어사포교사회가 사회 명사를 초청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듣는 특강을 마련했다.

범어사포교사회(회장 이종찬)는 8월 2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명사 초청 특강 일요법회를 열었다. 명사 초청 특강엔 서병수 부산시장〈사진〉이 찾아 '부산이 꿈꾸는 미래, 글로벌시티'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병수 시장은 부산의 현재 과제를 '일자리 창출'이라 설명하고, 공무원 체제 확인 및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서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각도의 변화를 맞는다. 부산의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포교사회는 매주 일요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17년 역사의 일요법회는 범어사포교사회가 주최로 범어사 신도가 아닌 등산객, 방문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는 포교 법석이다. 범어사포교사회는 법석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회원가입에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로 7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하성미 기자

수진 스님, 동명대에 1억2천만 원 쾌척

"불교문화 중흥과 한국불교 세계화 도움 되길"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23일 동명대 대학본부경영관 301호에서 대학 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23일 동명대 대학본부경영관 301호에서 동명대 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인 고(故) 동명 강석진 선생의 불심과 나눔 실천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지난 2010년 종립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최초로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했고, 대학 내에 별도 전담기구로 재학생과 일반인의 인성교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대가 불교문화 중흥과 한국 불교 세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정홍섭 총장은 "동명대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을 지속적으로 쾌척하시는 수진 스님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동명대가 한국불교의 글로벌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했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 평생교육 문화포교의 장으로 성장

8월 22일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


홍법사는 8월 22일 경내에서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현판식.

수행과 문화 포교의 장으로 활동하는 홍법사가 평생교육원 개원 선포식을 진행했다. 홍법사는 평생교육으로 지역민에게 특화된 힐링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22일 경내에서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심산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원정희 부산 금정구청장과 신도 300여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홍법사 평생교육원을 담당할 김민성 원장이 참여해 계획 및 포부를 전했다.

김민성 원장은 "홍법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맞춰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힐링가드너·명상·힐링 등 생태문화를 핵심 콘셉트로 특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봉행 옥천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 (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 (구,천장사)
H·P 010-5960-2085

“수련법회 男 참가 늘고 무종교인 많아”

순천 송광사, 2014~2017 수련법회 참가자 현황 공개

순천 송광사가 2014년부터 4년간의 수련법회 참가자들에 대한 기초현황을 취합, 공개해 눈길을 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09명의 수련법회 참가자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토대로 참가자 현황 분석을 8월 23일 내놨다. 송광사 수련법회는 4박5일 동안 출가수행자의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분석항목은 △남녀비율 △연령대 △지역분포 △수련회 참석경험 △종교 등으로, 향후 수련법회에 대한 1차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男 42% · 女 58% 비율

송광사 기획홍보실에서 작성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수련법회 총 참가자 남녀 비율은 남자 42%, 여자 58%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참가자의 경우 2014년 63%에서 점진적으로 소폭 감소해 2017년 55%까지 줄어들고, 남성은 37%에서 45%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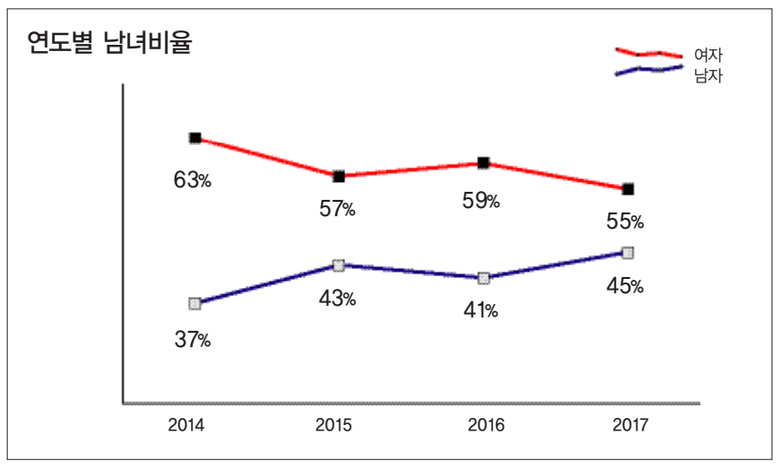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기획홍보실은 “비조직화된 신도 혹은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따로 절에 다니지는 않는 불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참석인원 추이에서 남성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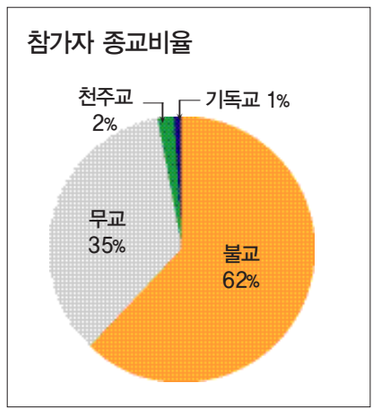
50대가 40%로 가장 많아

참가자 연령대는 40대가 20%, 60대가 14%를 차지했다. 특히 중장년층이 전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자인구 연령분포와 비교하면 50대가 40%로 가장 많아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20대와 30대는 불자 수 평균을 밑도는 비중을 보인다.

기획홍보실은 “‘절에 다니는 불자 중 나이 많은 보살이 많다’는 고정관념에 비하면 의외로 60대의 비중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라며 “수련법회의 경우 젊은이를 위한 정책보다는 40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참가자에 대한 분석도 있다. 수도권 34%, 광주 · 전남 26%, 부산 · 울산 · 경남 24%로, 이 지역이 참가자의 84%를 차지한다. 나머지 충청, 강원, 경북, 전북, 제주는 참여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기획홍보실은 “수련회 참가와 거리에 따른 변화는 없으며,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교인 35%, 예상보다 많아

참가자들 중 무교인이 35%로 집계돼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 것이 확인됐다.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천주교(2%) · 개신교(1%) 참여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또한 수련법회 경험이 없는 참가자가 52%, 1번 경험해본 참가자가 32%로 나타났다.

묵언, 안행, 오후불식 등 엄격한 규율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송광사 수련법회는 일종의 단기출가에 가깝다. 기획홍보실은 “향후 단기출가라는 사실을 홍보할 때부터 분명히 하되, 출가라는 무거운 표현보다 ‘4박5일간 스님이 돼보는 특별한 체험’이라는 형태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무교인 35% 비율에 대해 “불교에 호의적인 무종교인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사 측은 총평에서 “송광사 수련법회는 비조직화된 불자 혹은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단기출가라는 수련회 목적을 등한시하면 템플스테이와 동일해지므로, ‘스님이 돼보는 이색 체험’을 홍보전략으로 세워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50대가 수련회의 주축이므로, 신행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40대를 겨냥하려면 수련회가 아닌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도 분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戒 지키며 진실한 불자 되길”

정읍 내장사, 십선계 수계법회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8월 20일 지역 불자들과 정읍불교대학 재학생, 졸업생 불자들을 대상으로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내장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이날 수계법회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전계사 도완 스님으로부터 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를 통해 불자들이 청정한 계율을 바탕으로 신심 깊은 불자로서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도완 스님은 김종규 불자 등 수계불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한 뒤 “생명의 존엄성과 성실한 삶, 청정한 행, 진실한 언어, 맑은 정신 등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불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어르신 모두 행복한 삶 사세요”

장성 백양사, 어르신 잔치 열어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8월 18일 장성 약수초등학교에서 “북하면 어른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백양사장성읍지역법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혜오 스님(백양사 포교국장)을 비롯해 김광태 신도회장, 유두석 장성군수, 윤시석 전남도의원과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기념식, 점심, 문화공연, 노래자랑 등이 이어졌다.

유두석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백양사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해주셨다.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광주불교방송 산악회 회원으로 구성된 난타 8인조의 창, 판소리와 트로트 노래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산사순례 200회, 깊어진 佛心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108순례단 기념법회

지난 17년간 전국 명찰과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108산사순례단(단장 하유호)이 200회 성지순례를 맞았다.

108순례단은 8월 17일 전주혁신도시 수현사 대법당에서 순례 200회 회향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08순례단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사찰을 찾아 108번뇌를 닦는다는 의미로, 2000년 11월 당시 금산사 주지 도영 스님 발의로 창단됐다.

이날 법회에는 그동안 108순례단을 지도한 학림사 주지 일원 스님, 은적사 주지 석초 스님, 지월 스님, 구담 스님 등 스님들과 지역 신행단체장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일원 스님은 축하법문을 통해 “성지순례를 가는 곳마다 절도 다르고 부처님도 다르다. 내면속의 깊이 존재하는 자신을 찾아 성불의 인연을 맺어나가는 108순례단이 돼야 한다”며 “진실한 사랑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 깨달음을 성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108산사순례단은 8월 17일 전주혁신도시 수현사 대법당서 순례 200회 회향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하유호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역대 단장님과 지도법사 스님들의 지도로 200회 성지순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대자비심을 바탕으로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108순례단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0회 성지순례를 맞은 108순례단은 17년간 연인원 2만 명에 육박하는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다녀온 사찰 수만 해도 500여 곳에 달한다. 그중에는 북한의 금강산 보현사를 비롯해 인도, 미얀마 등 해외 성지순례도 5개국 10여 곳에 포함된다. 또한 5대 적멸보궁과 삼보사찰은 물론 전국 불교성지를 순례하면서 참회기도 정진을 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결제철이면 봉암사, 대승사와 같은 선방의 대중공양을 하고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불교계에 쾌척한 군불교 발전기금과 포교기금만 1억 원에 이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누고 비웠더니 한가득 찼네”

완주 송광사, ‘2017 송광백련 나비채’ 축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여름을 맞아 가족들을 위한 문화행사인 ‘송광백련 나비채’를 개최했다.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앞 글자를 따 나비채로 이름 붙인 이 축제는 8월 18~20일 송광사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사진〉 송광백련 나비채 축제는 △아름다운 연 음식 나눔 △나비채 사진 공모전 △나비채 만찬 △나비채 음악회 △종교평화 특강 △스리랑카 노동자 및 이주민을 위한 특별 법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8일 송광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이세진, 테너 신동원 등 유명 성악가가 출연해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또 음악회에 앞서 송광사 사운당 강의실에서는 천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의 종교평화 특강이 펼쳐졌으며,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을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종교지도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송광사는 이들 종교지도자들과 완주군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를 초청해 연 음식을 주제로 한 연



음식 만찬 행사를 개최하고 종교음식 요리 특강도 열었다. 20일에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스리랑카 특별법회를 개최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과 함께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주지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누고 비우고 살면 행복해진다. 빈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주 도영 스님은 “나눔은 자비이고, 비움은 참고 인내하는 인욕”이라며 “함께 나누고 비움으로써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 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 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佛事의 모든 것
불사닷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사.com

건축
• 대목 : 목조건축, 콘크리트 건축
• 지붕 : 전통기와, 동기와
• 소목 : 닷집, 창호, 불단
• 단청 : 금단청, 모로단청, 옻단청, 옻칠

소 품
• 개체 : 목탱화, 사천왕, 시왕
• 탱화 : 탱화제작, 모사작업
• 불상 : 목조각, 석조각, 주물, 소조
• 개금 : 불상개금, 옻칠개금
• 등 : 전통등 조형
Daum NAVER 불사닷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불사닷컴을 검색하세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01-4 3층
전화 1877-8472
이메일 tjdka64@korea.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방을 삼가고 해치지 않고 계행의 덕목을 지키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예언가 육관
– 22년 김정은 사망한다
– 25년 남북통일 이루어진다
– 27년 강한 지진 발생한다
– 29년 백두화산 폭발한다
한반도에 무슨일이 있는가? / 그대는, 가족은, 생존할 수 있는가? / 소망,승진,결혼,선가당선 등등 도통경계의 도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며 개인 질문에도 답해준다.
010-6357-5152
전화상담 직접상담

금강경, 반야심경 써드립니다
(금니99% 별도상담)
비구승으로 수행의 일환으로 씁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 262
일파 禪書畵연구원
010-3749-4553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대관령 철도개통 생활관
생활관 지분 200 여행힐링
(20분납) / 칠성불 모시는데 50 / 전자납골 1000 / 2020년 마감
서울포교당
02)2062-4488
(농)351-0962-1334-43 조계종간호복지 조계종 간호복지 교육원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편백 (히노끼) 시공
사찰환경 (주지실, 요사채 및 각 방사)과 힐링공간
수행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바닥,벽, 천정까지도 정성을 다해 시공합니다.
*목조건물, 신축, 증축, 개축 상담
(도량내 편의시설도 실비로 보시)
010-5737-0317
무루건업 원일 합장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비구니
청비스님을
찾습니다
010-4416-8833
으로 전화 바랍니다

천년고찰에서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하실 수 있는 분)
054-383-8032
054-383-23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0-3524-8930

노 비구
칠석 백중 행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봉사함
010-3221-0839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도심 포교당
위치: 부산 쾌법동 최고요지 / 포교당 2층 140평, 대로변 / 현재운영 중 / 4억5천 대출가능
010-3867-4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아침 죽 공양 : 오전 8시
점심 공양 : 정오 12시
저녁 간식(떡,감자) : 오후 5시 30분
010-4206-36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3034-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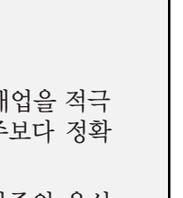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 (자격증서 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 (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 (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불교심리운명상담사 학 생 모 집
– 언 제 : 9월 16일(토) 10시–12시(입학식), 매주 토요일 6개월간
– 어디서 : 정토불교대학 대법당
– 누 가 : 정토불교대학장 상오 스님
– 무엇을 : 불교심리학, 명리학(운명상담학)
– 어떻게 : 현대감각으로 쉽고 알차게
– 왜 : 나의 심리치료와 상대의 심리(운명) 치료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함
– 자 격 : 누구나 (학력 / 나이 제한없음)
– 혜 택 : 졸업장 수여, 심리상담사 자격증 수여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정원 30명)
정토불교대학 02)2668-3459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성명학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25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9월 2일(토)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고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평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완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직진 1분거리)
02)338-8860 / 010-7701-2248
은평구 좋은이름연구원 / goodname114.com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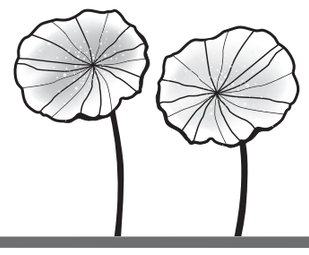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방을 삼가고 해치지 않고 계행의 덕목을 지키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 법구경-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8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경남 거창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단청법당. 공양간. 요사채. 스님 15년 계심
- 토지 3,000㎡ • 조용하고 위치 좋음. 운영잘됨
- 양도 : 8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55평 ◎ 면적 : 2200평
◎ 인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가
- 대지136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식당겸 요사74평,
- 그린상가 2층
- 가액 : 평당 1,500만원
- 주차장 완비

010-3752-2601

안양사찰(급)안내

- 조용한 도심 산사찰
- 토지 2,500㎡. 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방사건물
- 도심속산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됨
- 스님사정으로 양도
- 양도가액 : 28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원, 월150만 시설비 2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 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암자,수련원 안내

- 위치 : 상주시 화북면
- 대지 : 407평, 전 : 500평
- 법당 : 14평, 요사 : 70평
- 가액 : 5억 천만원
- 앞뒤로 병풍같이 애워싼 산이 그림 같고 집앞으로 계곡이 흐르며 마을 한쪽에 위치함

010-9334-14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5천

010-2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23번지
- 주택 밀집지역, 최상지역
- 2층 148㎡(약 45평) 방2개, 법당, 공양간, 화장실
- 가액: 보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무, 답사후 조절가능

010-2620-8482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폿집)
- 요사채: 3동200평(방18개)
- 가액 : 25억
- 특징 : 대가람의 사찰로 현재는 선방으로 운영중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4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기타:석등
- 산신각:10평(목조, 닷집)
- 가액:10억 5천만원
- 특징:도심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2채(공양실포함)
- 가액 : 2억7천만원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몽땅 4억
- 몸 만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2평, 창고 및 화장실 건평 총80평
- 법당 산신각은 특수 슈퍼하이칠, 경량철골판넬
- 텃밭별도 년 20만원 500평
- 가액 : 1억7천

010-4726-64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 상가 4층 약 5~60평
- 삼존불 :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 황토방
- 약 15년 법회(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산사로 이전)

010-3305-53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호계 동대산
- 건평 : 약 500평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공양간 2층
- 산업 도로 톨게이트 입구
- 가액 : 6억 8천

011-874-159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 건물 2층, 옥상 60평, 사용 가능
- 교통요지, 터미널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3,040만원

010-3452-1123
042)526-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 대지 190평, 전 130평, 임야 300평, 답 200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법당 2층, 판넬 24평,산신각 7평 콘크리트, 기와지붕 단청, 용왕각 단청 목조3평, 기타 수각, 포대화상, 심야전기
- 가액 : 8억 절충 농협 7300 대출

010-2433-93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하마정 교차로 큰 대로변 위치
- 상가건물 2층 약 35평
- 방 5개, 주방, 화장실, 큰 거실 등 시설특A급 완비. 사무실, 포교원 다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권리금 조금

010-9208-4030
051-862-6688

주문진 토굴임대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458-17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 평지텃밭 : 천여평
- 화목 및 기름보일러
- 가액 : 보증금 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오백만원

010-5714-7872

사찰 및 전원주택

- 위치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당골길 31
- 철골조 슬라브집 2층 및 부속 건물 1동
- 대지 839㎡(약 160평) 1층 50평, 2층 50평, 건평 100평
- 용도 : 사찰,전원주택,가든 등
- 가액 : 3억 9,000만원

010-5378-4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팔공산하
- 춘하추동 경관이 아름답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는 곳
- 총 450평, 하우스 100평안에 CCTV 2대, 법당 20평, 방2개, 화장실 2개, 공양간 약 50평, 텃밭 150평, 과실수, 주차장
- 가액 : 2억 3천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6억 1천만원

010-8528-4026
(주지스님 직통)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 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시내버스 승강장
- 장소 최적, 3층 건물 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차 1대
- 보살님 자리로도 장소 최고 명당
- 가액 : 보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7583-1235

사 찰 안 내

- 위치 : 큰강이 보이고 비룡산 중턱 차량 가능
- 전통사찰 법당 20평, A동 30평 B동 10평, 삼성각, 범종 5백관 땅 5백평 신도땅, 도지세 1년 10만원
- 위 모든 건물 법당시설비만 2천 9백만원 전체 드림
- 은사 절 급한 사정 때문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 법당 563번지,요사채,찜질방 553번지 임야 산110-6번지
- 법당,산신각,요사채,처사방,찜질방 563번지 대지147평/ 553번지 대지230평 / 임야 산 2007평
- 전기는 개인전기로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음. 정화조 시설
- 가액: 모든 집기 포함은 약 2억원 집기가 필요 없다면 1억 5천 가능함

010-8348-2002

한옥안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010-8551-3374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2천만원(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대지 총1100평 (대지 300평,답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 가액 : 2억

010-3806-3271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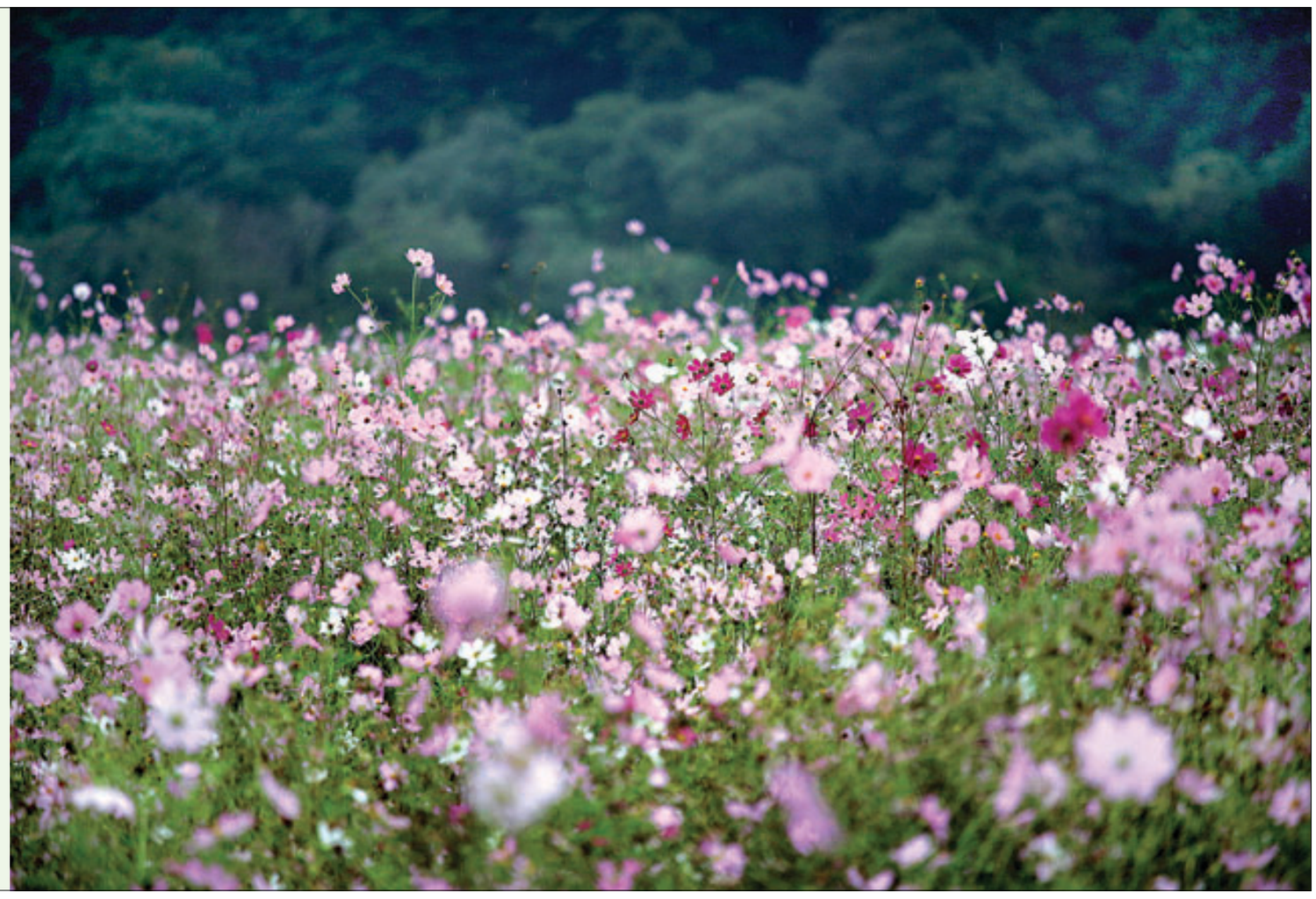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꽃이 뭐라고, 바람이 뭐라고

들판에 핀 꽃이 뭐라고 발길이 멎는가. 꽃이 뭐라고 한 순간에 마음을 풀어헤치는가. 바람은 또 뭐라고 그냥 보내지 못하는가. 꽃잎에 바람 부는 것이 뭐라고 가슴은 또 그 아래 눕는가. 꽃이 뭐라고, 꽃잎 위로 부는 바람이 뭐라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가. 가을 오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⑰ 불에서 태어난 화생동자

부처님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왕사성에 외도를 섬기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외도의 도인들이 옷을 입지 않아서 노형외도(露形外道)라 불렀습니다. '벌거숭이 외도' 라는 뜻이지요.

부처님이 장자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현(善賢) 장자여, 지금 임신한 그대의 부인이 장하고 잘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은 가족을 빛낼 것이요. 나의 법에 따라 출가해서, 아라한의 지위에 이를 것이요."

부처님 예언이 틀리는 일은 없지요. 그러나 선현 장자는 나형외도의 잘못된 말만 따르다가, 마침내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체를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잘난 아들을 낳을 거라, 예언하셨는데, 선현 정자의 부인이 죽다니, 이상하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왕사성의 성주, 영승왕이 장지에 왔습니다. 큰 의사라 불리는 지바카도 고개를 기우뚱거리며 왔습니다. 마을사람들까지 고개를 갸우뚱, 하며 모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고타마의 예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 통쾌하다. 우리 나형외도 만세"하며, 나형외도들이 벌거벗고 모였습니다. 참으로 꼴불견이었습니다.

"오늘 태어날 아기는 내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겠군"하고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같이 장지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오늘 아기가 태어날 거라 하셨습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다니요? 그러나 부처님의 예언이 틀릴 리는 없지요.

장자 부인의 시신을 타는 불 위에 올렸습니다. 시신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신의 배 부분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붙지 않는 어머니 배에서 연꽃이 솟아나더니, 연꽃 위에 사내아기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부처님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이 서두르셨습니다.

"선현 장자는 어서, 저 불속에서 아기를 꺼내시오!" 장자는 외도들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렸습니다. 외도들이 소리쳤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당신이 불에 타요!"

부처님은 의사 지바카에게 이르셨습니다. "저 아이를 불 속에서 구해 내시오!"

지바카는 불이 무섭기는 했지만, 부처님이 안 될 일을 시키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바카는 안전하게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늘 악기 소리와 노래가 흘렀습니다. "부처님 신통력으로 지바카가 불 속에서 아기를 구했네. 기쁘다. 아리랑 아라리요…."



그림 · 강병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현 장자는 불 속에서 구한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키우시오."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장자는 벌거숭이 나형외도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벌거숭이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타지 않은 건, 아기가 악으로 뭉쳐 있기 때문이요. 가족을 해칠 것이니 데려가지 마시오!"

아기 아버지가 망설이자, 부처님이 영승왕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이 아기를 데려가 훌륭한 백성으로 키우시오."

왕이 놀라며 급히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부처님은 아기 이름을 화생(火生)이라 지으셨습니다. 영승왕은 여덟 사람 유모를 두고, 아기 화생을 길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화생동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화생 동자에게는 이웃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누이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누이의 남편인 선현 장자를 찾아 가서 따졌습니다.

"그대가 나형외도의 말을 쫓고 부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내 누이가 죽었다. 부처님 힘으로 불 속에서 살아난 조카 아이가, 대왕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서 아비의 도리를 다하겠는가? 아니면, 내 친척과 이웃을 이끌고 와서 그대의 죄악을 물을 것이다!"

겁에 질린 선현은 예예, 하며 화생 동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영승왕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승왕이 말했습니다. "화생은 이미 내 아들이요.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화생을 얻었소. 부처님께 가서 이야기하시오."

선현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쏟으며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겠다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 선현은 화생동자를 찾아와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화생은 아버지를 이어서 장자가 되었고, 이웃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행을 실천하면서 집안을 빛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법을 따라 출가를 해서 곧 아라한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지요.

<비나야잡사(毘奈耶雜事) 자섭송(子攝頌)②>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6〉 허공처럼 강물처럼 사랑하라

모든 생명에 이로움 주는 慈悲喜捨

〈자비희사〉



분리된 존재라는 관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관념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위험하다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거부하고만 싶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립됩니다.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있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들어 스스로 더 깊은 혼돈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마음을 바꾸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립되어 있다는 혼돈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택할 것인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가을, 교외에 위치한 통찰수행회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날이 밝아올 때쯤 산책을 나갔는데, 맥스라는 큰 개가 살고 있는 트레일러식 이동 주택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맥스는 도베르만 핀셔(경찰견)와 쿠거(아메리카 사자)를 이종 교배한 것처럼 보이는 개였습니다. 나는 맥스가 흥분을 잘해서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위협적으로 공격하려 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이미 여러 가지 불행한 경험을 했던 터라, 이 개에게 온몸을 물어뜯기는 일로 그 불행한 시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맥스에 대한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맥스가 사는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집 마당에 맥스가 나와 있는 모습을 며칠 동안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만나리라는 생각 때문에 더 긴장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도,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도 무서운 맥스였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 자비와 사랑의 기도를 하며 그날 해야 할 일을 모두 바치리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맥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드디어 맥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멀리 여명 속에 맥스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을 찌를 듯한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나는 나 자신과 점점 분리되어 갔습니다.

'맥스가 저기 있구나. 정말 큰 개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드디어 맥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무심결에 내뱉었습니다.

"맥스, 내 중간 이름은 맥진(Maxine)이야. 나도 맥스로 불렸었지."

우리는 다시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맥스는 앉았고 나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내가 선택할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스와의 관계에서 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자 맥스가 마치 이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여겨졌습니다. 나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고 실제로 내게 해를 끼칠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로 지내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나는 여전히 맥스 앞에서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맥스는 더 이상 무섭고 낯설고 커다랗고 나를 물어 버릴 것처럼 으르렁대는 짐승이 아니었지요. 맥스는 이제 낯선 타자(他者)가 아니었습니다.

他者라는 관념 심는 공포
모든 존재 연결돼 있다는
근원적 사실 알아차릴 때
존재 대한 사랑으로 극복

공포는 '타자'라는 관념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이러한 공포는 삶의 외로움과 거리감을 강화시킵니다. 멍한 상태와 공포 사이를 오가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조여들고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분리된 존재라 여기는 그릇된 생각은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변명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나야." "나는 이론 존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체가 아닌 아주 단편적인 면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요.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난다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남긴 유산은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분리감은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지독한 고독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위험한 국경선을 넘고자 각오한 지친 여행자와도 같습니다. 즉, 새로운 땅에 도달하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지만 속으로는 그 희망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지닌 여행자 말입니다. 변덕스런 희망과 마음속에 깔려 있는 불안 사이를 오가며 우리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국경이라는 것이 본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떤 안도감이 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일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통찰에 다다르기 위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 즉 잘못된 통념의 짐을 벗어나는 일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붓다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 탐구했고, 또한 명상 수행과 함께 네 가지 거룩한 마음(사무량심)이라는 가르침으로 삶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통념들을 넘어서 분명하게 보는 법을 배울 때 더 이상 존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왔다가 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도를 봅니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우리 삶은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흐른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삶은 언제나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 순간, 시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매 순간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통념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환하고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흐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완전히 분리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볼 것입니다. 생명 자체의 본질과 깊이 엮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으로부터 사랑과 연민이 생겨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갖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현하도록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라는 습관과 잘못된 통념이 자라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과 생각이 일어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합니다. 모든 존재를 위한 관심과 거기에서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를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도록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에서 생각이 일어나게 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통념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생명 사이에서 생겨난 불화를 치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 채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 잠재력

우리는 자신에게서조차 '타자'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맥스와 같이, 내 안에 있는 크고 볼썽사납고 끔찍한 맹수의 성향은 내적 단절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미국 출신의 승려이며 수행 지도자인 아잔 수메도(Ajahn Sumedh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괴물이 숨어 있고, 그 괴물은 틈만 나면 나타나 우리를 제정신 아닌 상태로 내몰고자 한다."

맥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맥스가 존재합니다. 분노, 욕망, 질투, 탐욕 등 열거할 수 있는 항목은 수없이 많습니다. 끔찍한 상황에 놓인 이러한 부정적인 힘들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우리의 연민과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힘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명상 수행을 하며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을 닦을 때 경험하는 가장 생생한 의식의 전환은 아마도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수행을 한 뒤에는 더 이 상 예전에 가졌던 관념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 이제 내 한계에 도달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관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잠재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믿기 어려울 만큼 역동적이고, 강력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돌볼 대상과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묘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한계와 가능성을 제외한 그 무엇도 삶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힘을 말한다고 해서 외적이고 물질적 조건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현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을 품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

모든 것을 몰입을 해서 근본에 항상 같이 놔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즉 말하자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요량 있게 잘하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자만 나던 회사가 그 사람 하나가 거기 들어가고 나서 흑자가 돼 버리니까 또 적자 나는 회사로 보내고, 또 거기서 흑자가 나니까 또 적자 나는 다른 회사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물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공법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지혜롭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젖 줄을 믿고 그것만 쥐고 '너만이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고 거기다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악수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손 하나가 마음에 따라서 움죽거린다는 거를 알게 되면 보는 거, 듣는 거, 몸 움죽거리는 거 다 마음에 따라서 움죽거리는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되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실천을 보여 줄 수가 없어서 속은 다 빼놓고 이렇게 겉더껑이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거니까 난 지금 겉더껑이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짓 발짓 해 가면서. 허허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산조각 내서 따지지 말고, 1, 2등을 따지지 말고 그냥, '1, 2등을 하는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살리는 것도, 나의 밥줄을 떨어뜨리는 것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너한테 달려 있어. 이게 흑자가 나야 살 테니까….' 하고선 그냥 몰입을 해 들어가면 그건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뭐 틀고 앉아서 누가 하래나요? 일할 때나, 변소에 갈 때나, 또는 길을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와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또는 좌선이다 하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전부 참선이 되는 거니까요.

질문자2(남)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스님 친견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요.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릇만큼 대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릇의 크기보다도, 어떤 그릇은 작은 데도 좀 이뻐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똑같은 그릇인데도 찬물을 담아 주시고 그러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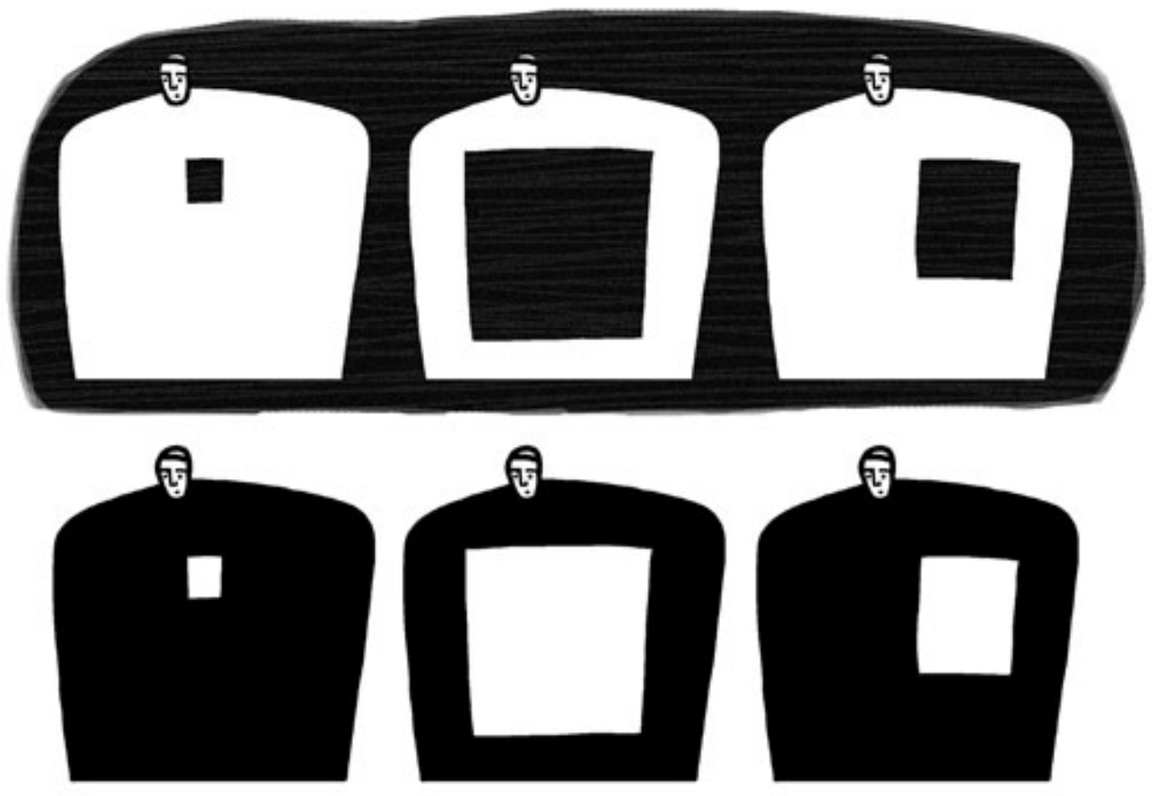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그것은요, 댁의 마음이 이만 하다면 내 마음도 이만 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댁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나도 바다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게 있지 않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거지, 누가 크게 해 주고 작게 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사람 사는 상식으로 '이건 넘어 뛸 수가 없어.' 하는 관습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죠. '관습은 없다' 즉 말하자면 습도 없고 번뇌도 없다, 붙을 자리가 없다, 체가 없다,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어도 그것은 뛰어넘는 사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현실로는 이렇게 계단이 딱딱 져서 있지만요. 계단을 올라오셨죠? 계단이 딱딱 있어서 딛고 올라와야 올라오죠? 그런데 체가 없는 마음은 계단을 점프해서 올라와도 올라오죠? 바다를 건너갈래도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 속을 들여다보려 해도 들여다보죠, 은산철벽을 뚫고 나갈래도 뚫고 나가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든 것을 몰입을 해서 거기다 항상 같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놔서 그것이 완전히 보림이 됐을 때에 이 모든 중생들도 다 화해서 공생이 되는 거죠. 공생, 공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어디는 못 가겠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론은 알았는데 진짜 보면 보이질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길 통해야 보이는데 여길 통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승 저승 볼 수 있고 멀고 가까움이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군데밖엔 없어요. 그것도 도는 아니지만 도와 겸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것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도 누진통으로 합해야 이게 도다, 이런 말이죠.

질문자2(남)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방진 얘기지만요, 스님의 일등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왜 못하겠소, 응? 어차피 탤런트들인데, 어차피 끝나서 막 내리면 그뿐인데, 그까짓 것 던져 버리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달랑달랑하우? 하하하….

질문자3(남) 안산에 사는 심륜회 회원입니다. 스님, 항상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님, 지금 우리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을 때 어떤 거사는 머리로 기억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거사는 귀로만 듣고 어떤 거사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즉,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머리, 귀, 가슴, 어느 이름으로 공부해야 바른 공부가 될까, 질문 올립니다.

큰스님 그럼 육신의 하나라도 떨어져 나간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하나만 없어져도 작용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육식(六識)이라는 말을 하죠.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그거를 나는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지막지하게, 어린애가 젖병 하나 들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그냥 그러듯이, 그걸 붙들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듯이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아는 척하고 따지고 들면 오히려 이 무의 세계에는 근접도 해 보지 못합니다, 정신계에는. 우리가 아는 거는 나중이고 무의 세계부터 이렇게 둘이 아니게끔 통해야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자의, 즉 말하자면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自)스승.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아리송할 때 진짜 거기다 되묻고 되묻고 하다가도 자기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나한테 물어라 이겁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일일이 따지게 되면 언제 갑니까?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점프하랬잖아요.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냥. '그냥 모든 걸 거기 놓고 들어가라, 그냥 밀고 들어가라, 물러서지 말라, 그냥 믿고 밀고 들어서라.' 이런 소리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고 아주 여여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그대로 행을 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 아닌 행을요.

사회자 법형제는 아니지만 스님들이 추천을 해서 금왕지원 학생회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름 수련회에서 느낀 게 많이 있어서 스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 오늘 질문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자4(여) 저는 금왕지원 학생회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큰스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구요. 여기 질문하러 오기 전까지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큰스님

☞ A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 A21면에서 계속

뵙고 나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계속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묘법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 왔어요. 그런데 잠깐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님 뵙는 순간 그냥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걸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요즘에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깊게 잘 안되고, 제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고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런 것도 많은데 그냥 그거를 보게 되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랄까, 너무 까마득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한순간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오고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물론 계속 주인공에 관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만 큰스님께 가르침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지금 걸음마도 걷지 못하고 자라는 애기가 젖병 하나만 들면 됐지…, 똥 누면 똥 치워 주겠다, 아니, 잠자리가 탁 있으니 그냥 잠자고 그러면 되지,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허허허….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저 나무들이 무조건 자기 뿌리를 믿고 살고 있어. "너, 네 뿌리를 진짜로 믿고 사니?" 하고 저 나무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진짜로 믿고 사니?" 하고 묻는다면 묻는 자가 어리석어. 그렇지? 그냥 뿌리는 이미 달려서 벌써 싹이 나서 살고 있는데 "너 뿌리를 진짜 믿니?" 이러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그렇지? 그런 것과 같이 너도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를 형성시켜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형성시킨 너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즉 말하자면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 봐! 그걸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은 다 소용없어. 이름이 좋든 그르든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둘이 아닌 이 한 개체가, 몸뚱이가 살고 있는 걸 말해. 그런데 고정된 게 없이 살고 있거든, 모두.

질문자4(여) 그리고요,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스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산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담력 테스트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조가 길을 잘못 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산을 헤맸어요, 밤에. 9시 정도에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 2시 정도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잠깐 꿈꾼 것 같고, 그때도 무섭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믿을 거라고는 주인공밖에 없었어요.

큰스님 잘했어. 정말 그렇게만 자꾸 해 나가면 일등 될 거야. 하하하….

질문자4(여) 그때, 정말 큰스님도 계속 찾고 주인공도 막 찾고 하면서 내려 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게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모든 게 돌아간 것 같애요. 그래서….

큰스님 우린 처음부터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우리는 진리를 참구하고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자꾸 배우러 어디로 쫓아다니고, 붙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쓸 때면 빈손,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가서 이렇게 붙들어 줘. 그 나무들이 전부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 나무들이 전부 보살들이 돼, 길잡이가 되고.

질문자4(여) 큰스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래. 이 묘한 도리를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터득해 나가야지.

질문자5(남) 큰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법형제 심우회 회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에 겪었던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뻤던 마음을 저 혼자 알기에는 정말 아쉬워서 저 밑에 신축 건물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열흘 전에 큰스님을 친견하고 나서 위암과 폐암을 앓던 제 아버님께서 편안히 잘 가셨습니다.

큰스님 편히 앉아서 얘기해요.

질문자5(남) 네. 그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다 못해 와서 스님을 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 아버님께서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6일 있다가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우제를 지내고 왔는데 그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참, 고마운 일만 생겨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 전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겪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아버님의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오던 비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11시에 삼우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10시 한 40분까지 비가 왔었는데 장지에서 제사를 모시려고 시작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식당에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하고 제 동생이, 그 장지에 미리 가서 봤었는데 약간 산 밑쪽에 흙을 메꿨던 자리에 있는 묘소인 줄 알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받으러 갔더니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제일 위에 있는 본토에 잡게 돼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스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큰스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몸이 크냐?" 그러니까 "큽니다." "그래, 무슨 까닭에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고 옴이 없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몸이기 때문에 큽니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 가지고도 이 세상을 다 거기에 한데 집어 넣어서 한 몸이니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티끌 하나에 다 집어 넣어도 손색이 없으니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전은 못 봤지만, 지금 내가 그냥 하는 소립니다.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크냐고 한다면, 이렇게 크다 저렇게 크다, 말 못 할 지경이죠. 그렇듯이 댁의 그 모든 것을 보는 건, 하여튼 그건 비밀이니까 살아가면서 터득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러한지, 누가 악수를 해 줬는지, 누가 스쳐 갔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5(남)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 다 끝났습니다.

큰스님 질문을 한 게 있소? (대중 웃음) 허허허…. 대답한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마음공부 하는 것이 공부 같지도 않고 뭐, 헬렐레하게 생각되기도 할 거예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배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아가야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방이 다 터져서 밟을 계단이 없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가고, 또는 산을 넘으려면 산을 넘고, 또 손을 잡아 주려면 잡아 주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쁘고 좋은 거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거를 알면 그 나쁜 것은 좀 제껴 놓고 좋은 생각으로 더불어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그것도 한데 넣어서 그냥 좀 탁탁 뛰어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발로 뛰어 봐라 이거예요. 아, '한 발로, 한 손가락으로 버텨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한테 '체는 공했다, 체는 고정됨이 없어서 항상 보고 듣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고, 그러니까 바람처럼 날아간다. 우리 인생은 구름처럼 둥둥 떠서 가는 도중이다. 우리 구름이 스러져 버리면…,' 하는 얘기나, 또, 막이 내리면 그뿐이라고 하는 탤런트 얘기, 뭐 별소리 다 해 가면서, 손짓 발짓 다 해 가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한 것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둘 아닌 일대사라면 전체를 말합니다. 요 벌레 한 마리라도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고' 이랬으니까 '과거 미래 현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인연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나쁘게 사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수백 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런데 용기가 없죠, 패기가 없죠, 관습이 많죠, 욕심이 있죠,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말려서 뛰어나가려 해도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마음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집에 아침에 도둑이 들었는데 전부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친정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항시 울타리를 쳐 놓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우선 만나면 죽지는 않겠지만 내가 놀라니까, 모두 그저 놀라지 않게, 무섭지 않게, 둘이 아니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미리미리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야.

지금 지구 대기권에서 이렇게 망이 쳐져 있는 거는 법망이란 말입니다, 법망! 우리 몸에도 법망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 세포가 법망이죠. 이 법망이 없으면 온갖 곳에서 들어와서 이거 못 삽니다. 세균성도 들어오고 영계성도 들어오고 유전성도 들어오고 전부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법망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 하게 하지요. 이 속에서 만약에 양 개체가 대립해서 싸우면 이 집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만 무너지고 그놈들도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또 인연이 돼서 또, 또, 또 간단 말입니다. 뭘로 태어나든지 또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 년이 갈는지 수천 년이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거를 다 벗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힘이 없다, 있다 이거를 논의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머슴아이가 왜, 물 땅땅 치고 그냥 막 개구장이처럼 놀듯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서 해결을 하고 이래라 이겁니다. 그게 뭘 내가 할 줄 모르고 알고가 없어요. 자불은 본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성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본래 불성이 있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다, 있는 것만 믿으면 된다. 저 나무가 자기 뿌리 있는 걸 믿고 그냥 살듯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죽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답답한 심정이지만 나도 겉더껑이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와서 만나고 간 뒤에 아버지가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다고 하셨다는 그 뜻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디? 그러니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이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이유를 댈 수 없는 나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세요.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세상 산 세상을 왕래할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단을 밟아서 꼭 그냥 낑낑거리고 올라 오려고만 하지, 왜 그냥 뛸 줄은 모르느냐 이거죠. 어차피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형성시켜서 자기 집을 삼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럽니까?

그럼, 그만 내려가도 될까요?

※위 법문은 1998년 8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젖병 하나 들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그냥 그러듯이,
그걸 불들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듯이 그렇게 사세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불자 세상보기 |

자녀에게 '인격의 책' 선물하세요



이미령
불광불교대학 전임강사
불교칼럼리스트

자녀 동반 서점 방문 증가
훼손 서적도 그만큼 늘어나
부모의 비양심적 행위에 눈살

독서는 다른 세상 바라보는 창구
삽화는 부모 행동, 글자는 부모 말

"아이가 서점서 읽은 책 기억할까?
서점서 함께한 행위를 기억할까?"
기억 남는 인격 전달이 부모의 화두

아이를 데리고 서점 나들이하는 부모가 많다.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책을 많이 읽었고, 책 속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도 있으니, 내 아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바람이다.

방송에서 날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내게 이따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이 세상에는 책보다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책 읽기의 즐거움을 공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책읽기를 권한다. 책을 읽으면 현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다는 일은 몇 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쓰인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 일이다. 글자라는 배를 타고 맥락이라는 너울을 타면서 어느 사이 한 권의 책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얻는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이끌어 와서 분석해보고,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게 된다. 부분적인 면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챙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책이요,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현명해진다.

그래서 예로부터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책 사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런 부모를 떠올리며 고마워하고, 부모는 입히고 먹이는 데에는 궁색했을지라도 책 사주는 데에 아낌없이 돈을 지불한 자신의 교육방식을 자랑스레 여긴다.

어린 자녀들을 서점에 데리고 온 부모를 볼 때면 부모 맘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아이들은 책더미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책을 읽기도 하지만 책이 있는 공간을 맘껏 즐긴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뿌듯함은 말해 무엇할까.

그런데 서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단다. 견본서적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굳이 비닐포장을 찢고, 책을 훼손하는 일이 너무 잦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신간서적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부모가 나서야 하는데, 방기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신과 아이가 훼손한 신간을 몰래 내려놓거나, 훼손했으니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가 서점직원이 거절하자 사지 않고 가버리기까지 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일이 지금 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반품된 책은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는데, 영세한 출판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아이는 자라서 부모와 서점에 가서 읽은 책 내용을 더 기억할까 아니면 서점에서 부모와 함께 한 행위들을 더 기억할까.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편의를 위해 마련된 책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행여 자신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부모의 행위가 아이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은 구태여 부모가 책 한 권을 내밀지 않아도 이미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건 부모라는 책이다. 그 책에 그려진 삽화는 부모의 행동이요, 빼곡하게 쓰인 글자는 부모의 말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인생의 책 한 권이 있다. 옛 스님 한 분은 "내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네. 펼쳐보면 글자 한 자 없지만 언제나 커다란 빛을 내고 있네"라고 노래했다. 그 책을 평생 꺼내 읽으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책으로 평생 남을까. 서점에 들어서면서 부모가 품어야 할 화두가 아닐까한다.



기자칼럼

백년대계본부를 지켜라

윤호섭 취재부 기자

오늘(8월 30일) 예정돼 있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이 연기됐다. 부족함 없이 준비해 잘 알리고 확실히 미래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득 지하철역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흔히 보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라는 팻말이 떠오른다.

거두절미하고, 요즘 백년대계본부는 소위 '열일(열심히 일한다)' 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준비뿐만 아니라 백년대계를 디자인하기 위한 사부대중공사, 조계사 정진법당 기도 입재 등 많지 않은 인원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물론 열심히 일한다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열일' 의 의미는 달라진다.

공직사회나 종교단체 등 관료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구성원들은 새로운 수장의 선출을 앞두고 조용하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차기 집행부의 성향을 알 수 없어 거대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엔 부담이 뒤따르니 별 수 없는 도리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백년대계본부의 최근 행보는 가히 독보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본부를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종령기구' 이기 때문에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운명이 정해진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다음 총무원장 때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법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차기 집행부가 뜻을 잘 이어받아 백년대계본부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야만 한다. 그러려면 백년대계본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일련의 활동들이 이를 입증해가는 모양새다.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一年樹穀 十年樹木 百年樹人)'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관자(管子)의 가르침이다. '1년 뒤를 내다보며 곡식을 심고, 10년 뒤를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 는 뜻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지금의 조계종과 불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백년대계본부에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백년대계본부는 이제 씨앗을 뿌린지 고작 7개월 지났다. 곡식이었다면 이미 추수하고도 한참 지났을 시간이지만 단체명에 맞게 100년을 내다봐야 하니 어미젖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인 셈이다. 그만큼 주위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분명 현재로써 차기 총무원장은 누가 될지 예단할 수 없고, 백년대계본부의 운명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기 집행부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를 나무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종권이 바뀌더라도 백년대계본부는 유지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멀리 돌아왔다. 혹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스님이 이 글을 읽는다면 한 번쯤 되새겨주시길 바란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백년대계본부는 정규직보다 계약직 종무원이 더 많다. 그럼에도 선거라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종단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박수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社說

불교 무형유산 발굴이 중요하다

다비 · 가사 · 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 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조계종 종단 차원 보존에 나선다고 한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무형분과 회의를 열고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성보보존위원회는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 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서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에 따른 것으로 "총무원장은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고 명시돼 있다.

해당 종령 제정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성보보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 받거나 자체 발굴에 나섰다고 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종단 차원 지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불교는 유 · 무형 문화재의 보고이다. 특히 무형 유산의 경우 불교 전통 의례부터 풍습까지 다양하다. 어쩌면 일상 사찰에게는 너무 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풍습도 보존해야 한다. 시대 변화로 인해 단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무형 문화유산 발굴에 나서야 한다. 전통은 인식하고 지켜나갈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불교중앙博 10주년에 부쳐

'불교문화 수호와 보존' 를 기치로 2007년 건립된 불교중앙박물관이 10주년을 맞았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한 불교중앙박물관은 그동안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 40여 성보박물관과 성보박물관협회 등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문화재 관리의 중심을 맡고 있기에 그만큼 남은 과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불교계에 불교문화재 관리나 보존에 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 감사원 조사는 불교계에 충격을 선사했다. 국보로 지정됐음에도 방치된 불교문화재가 대거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인력 부족이었다. 규모가 작은 사찰 성보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전문인력 없이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중 스님들의 노력으로 불교문화재들이 보존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더라도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불교문화재 보존 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확충, 인력 배양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도 문화재 관리를 보존 측면에서 인력 배양으로 넓혀 저변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 중심은 10주년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이 맡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 문화재의 60%는 불교문화재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지난 10년이 이런 불교문화재를 지키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을 위한 저변확산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모든 것이 나의 업…여생을 오직 남을 위해 살겠다”

윤 을 암 백천사 신도회장

한국 불교 포교 · 전법의 대법사
장묘문화 조상위패 대중화 구현
포교 정체성 확립 문서포교 실현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 복지 구축
불교 탄압과 시련 국가 위기 초래
호국불교 이념 고취 국태민안 기원



△ 윤을암 신임 ‘한불련’ 중앙신도회장은 “오직 부처님을 시봉하고 불법을 홍보하며 중생구제와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남은 여생을 화향하고 불교의 중흥과 함께 사회복지 구현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 경내〉

존경하는 전국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백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한불련) 종단대표자와 관계 임원 및 전국 신도여러분!

부족한 제가 ‘한불련’ 중앙본부 전국신도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전국 법인종단 큰스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포교사 직원들과 신도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포교전법사 생활 10년만에 전법,기도,포교의 요람인 ‘한불련’에 몸담고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할수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되 “마음에 한 생각 일으키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체법은 모두 다 마음으로 지었으니 심지어 천당이나 지옥도 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이란 무심(無心)으로 공부하여 온갖 인연을 모두 버리고 분별망상을 버리는 것이며, 이와같이 공부하여 행할 때 삼라만상에 부처님의 진면목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불자 여러분!

‘한불련’은 현재 348개 종단이 가입된 한국불교 최대 법인단체이며 소속 승려 5천여명과 신도 1백만이 가입된 단군 이래 최대 단체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견인하고 한국불교의 최고 정점에서 부처님의 대승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단체에 첫 ‘한불련’ 전국 중앙신도회장 직을 맡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준비과정은 무척 다사다난했고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20년간 예토세계에서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보조 큰스님의 가르침을 수행신조로 삼고 정진해 왔습니다.

오직 전법과 포교와 한 생각의 깨끗한 마음이 도량이라는 생각으로 공든 탑을 쌓아 정각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포교당을 개설하면서 삼보를 사랑하고 참회와 발원을 늘 행하며 부처님의 위선력에 힘 입어 업의 장애를 녹이고 위없는 도를 실천 현재 2만여명의 신도를 제접하고 있습니다.

수연중생(隨緣衆生)에게 자비만신(慈悲滿身)의 화신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능한 포교사는 자기자신의 헌신을 통해 촛불을 태우는 원대한 서원을 실천 넉넉한 보시와 뜨거운 인정을 베풀줄 아는 대보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이제 우리는 백천간두에서 진일보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와 종교지도자들은 뼈를 깍는 고통과 환골탈퇴를 통해 거듭나, 국민의 실망, 국제사회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종단간의 화합과 문중간의 차별 등 현안의 난제를 해결해야 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전국불자들이 염원하는 “불교의 생활화” “강하고 당당한 불교”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과제를 시급히 완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시대가 요구하는 불교는 중생과 소통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간 불교의 종단 지도자들은 고통중생의 목소리를 듣고 중생들의 고통 치유를 위해 노력이 충분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종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전국불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불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덕큰스님과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저는 ‘한불련’ 전국 중앙신도회장으로서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의 과제에 대비하는 일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야에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사바세계를 정토세계로 구현하고 희망찬 미래 조국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불자를 한결같이 섬기고 고통을 분담하는 아픔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실천하기 위해 종단 큰스님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자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직접듣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저는 솔선수범하고 우리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히 나투어 환희심을 일으키고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구체화 하고 모든 불자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큰스님 그리고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불자님들께서도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불련’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큰스님들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큰스님,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어렵고 먼 길을 지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불련’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동체대비를 구현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앙신도회 회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큰스님들과 불자님들과 함께 새로운 한국불교의 지평을 열어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 경남 사천 백천사 대웅전과 만덕전에 봉안된 나만바부처님. 백천사는 동양최대 와불부처님과 조상위패 봉안을 통해 중생구제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윤을암 ‘한불련’ 전국신도회 중앙 신도회장은 …

한국불교 진리홍포와 포교를 대표하는 전법사다.

그는 20년 전부터 척박한 한국불교 포교 풍토에 대천세계를 덮을 안목을 갖춘 정문정안의 눈 밝은 남자로 시대의 법기로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포교의 현장에서 “정법(正法)이 아니면 설혹 이롭다 할지라도 취(取)함이 없고 정도(正道)가 아니면 향후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발길조차 들여놓지 않는다. 이것이 윤을암 회장의 진면목이다”

이후 그는 포교의 현장에서 두타행의 화두를 놓고 용맹정진 불교의 혜명을 참구하고 몰두 끝에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는 자재의 견성을 깨치고 사(事)에서 사(邪)가 없고 이(理)에서 장(障)이 없이 이사(理事)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방무외(大方無外)한 출격장부(出格丈夫)로 자비망신(慈悲亡身)의 화신이 되어 수연중생(隨緣衆生)에게 넉넉한 보시와 뜨거운 열정으로 고통중생과 동거동락하며 선지식으로 상(相)없이 주고 승속을 초탈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奉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신도회 중앙회장 취임법회

불기2561(2017)년 정유년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종단최고위원회최고위원 임명장수여 및
전국신도회장 취임 대법회

일 시 :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관음회조계종 백천사 경내
경남 사천시 백천길 326-2 (백천동) 백천사

▶ 제1부 취임법요식
▶ 제2부 어르신 위로잔치 및 호국영령 무주고혼 수륙천도대제





경남 사천 와룡산 백천사도량 ‘한민련’은 이곳 백천사 도량에서 전국신도중앙회장 취임식을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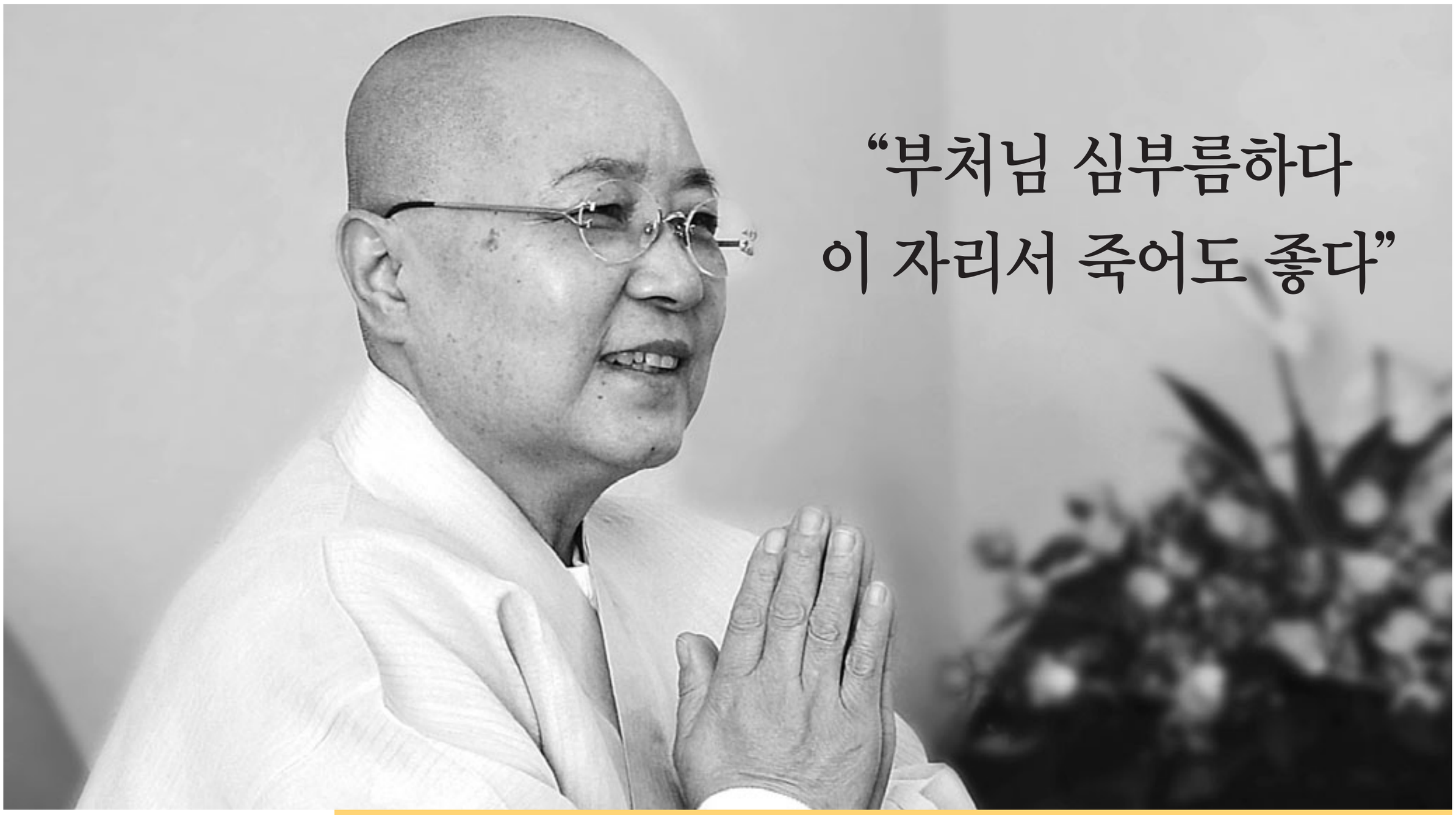


전국신도회 윤을암 신임회장 약력

(사)전국장애인봉사회 총재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전국 협력위원장
대한불교관음회조계종 와룡산 백천사 신도회장
양산 녹야원 천불사 신도회장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총재
종교세계신문사 전국취재본부장

H.P 010-3845-1641 전국신도회장 윤을암
010-5808-6601 전국신도회 전국조직관리위원장 허세창
010-9396-2081 전국신도회장 부회장 김해주
010-8554-0465 전국신도회장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수

전화 02)2198-5022~4 (서울중앙본부 종무과)
051)907-8852 (백천사 부산종무소)



圓寂

현대불교 1162호
불기2561년 8월 30일 수요일

연자당 혜원 스님

1938~2017

“나도 버리고 가는데 무엇에 착(着)을 두겠습니까. 착할 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면 신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을 더 전달해 드리나 이거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떡하면 내가 진짜 부처로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자나깨나 그게 중요한 거지.” 〈1993. 2. 21 시카고법회〉

“열심히, 나는 오직 이 생각은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나는 부처님 도량에서 열심히 부처님 심부름하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2012. 4. 1. 본원 법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연자당(蓮子堂) 혜원(慧圓) 스님은 정진과 시봉, 포교와 전법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혜원 스님은 일생을 통해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게 정진하며 선원 창립자인 대행 선사의 손과 발이 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마음 도리를 홍포하는 일에 불철주야 쉼이 없었다.

1938년 3월 29일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난 혜원 스님은 1981년 대행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198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2년 한마음선원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제13대 중앙종회의원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선원 대중의 ‘엄한 어머니’

안으로는 수행 정진과 선사의 시봉을, 밖으로는 선원 외호와 포교에 진력을 다했다. 특히, 스님은 1992년 한마음선원 주지를 맡은 이후로 투철한 정진력으로 선원을 운영함에 심신을 아끼지 않았다. 25개에 이르는 국내외 지원 어느 한 곳도 스님의 손길과 원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또한 혜원 스님은 대행 선사의 맏상좌로서 150여 명 사제들의 수행 정진을 보살피고, 선원 사부대중의 어머니로서 역할하며, 한마음선원 발전을 이끌어왔다.

불자들의 생활 참선 수행을 지도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거사회,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불자들에 맞는 다양하고 현대적인 포교 활동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아 종단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돌려 말하거나 맞춰주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을 ‘엄한 호랑이 스님’으로만 알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스님의 진면목은 ‘어머니’였다. 못난 자식 종아리를 때리고 돌아서서 눈물짓던 혜원 스님의 속뜻을 은사 스님의 법문에서 느낄 수 있었다.

“주지가 급한 마음에 그냥 왈칵해버리는 걸 보고 차이를 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 있으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 소리도 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속 깊이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 선사 법문 중에서〉

스님의 삶은 선원의 역사

혜원 스님의 삶은 한마음선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사에는 환희와 번뇌가 모두 담겨 있다.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맏형이라는 자리, 주지라는 자리를 오로지 신심과 원력으로 스스로를 경책하며 이끌어 온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기실 큰 살림을 이끌며 150여 사제와 수많은 선원 신도들을 지도하며 선사께서 내린 말씀을 시행하려면 부득이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을 것이다. “내면을 관(觀)하며 선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어른 스님께 뭔가를 시정해주십사 청하러 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혜원 스님의 생전 술회에서는 스님의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화두와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어디를 가나 꾸밈없고 당당한 대장부였다. 해외 지원 개원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다녔던 스님은 늘 있는 그대로를 대중들에게 보여줬다. 어디를 가도 휘둘리지 않는 스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대행선사 맏상좌로 선원 발전 견인차
선사 입적 후 가르침 선양에 주력
엄하고도 자애롭던 선원 대중 어머니
“모든 게 공부거리”… 당당한 대장부

대행 선사께서 알래스카 지원을 방문했을 때 혜원 스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선사는 혜원 스님에게 “고무신을 같이 갖고 오라”고 했다. 한국서 고무신을 가지고 다시 알래스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검색대에서 사람들이 영어로 고무신을 보고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영어를 몰랐던 스님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너는 네 말 하는데 나는 내 말 못하겠냐” 하고는 한국말로 “고!무!신!”이라고 공항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검색요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통과시켜줬다고 한다. 스님은 오직 자신의 근본에 의지함으로써 물러서지 않는 패기를 스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줬다.

“전부 다 일거일동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써 심부름을 하고 갈 뿐(1998.11.7)”이라고 설했던 혜원 스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만사가 공부라고 했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신도들에게 말할 수 있으며, 모든 게 공부거리라고 했던 스님.

스님의 삶에서 우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면목을 만난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셔야합니다. 열심히 정진, 또 정진하십시오. 모두 열심히 하세요.” 생전 말씀이 남아있는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주지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을 추모합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www.hyunbulnews.com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세요.”

■ 연자당 혜원 스님 49재 일정

- 8월 27일 초재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오전 11시
- 9월 3일 오후 2시 2재
- 9월 10일 오전 11시 3재
- 9월 17일 오후 2시 4재
- 9월 24일 오전 11시 5재
- 10월 1일 오후 2시 6재
- 10월 8일 오전 11시 49재

혜원 스님의 입적에 불교계 안팎의 대표자들은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생전 혜원 스님과의 친분과 함께 그 덕화와 가르침을 높게 평가한 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수많은 대중들은 혜원 스님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조사 한구절 한구절 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대중들은 스님이 평소 남긴 가르침에 따라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다짐했다. 〈편집자 주〉



화합의 족적 남긴 시대의 스승으로 기억

법 어

사바 연연 말고 열반락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혜원 스님의 영법을 위해서 합장 하겠습니다. 혜원 스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왕생극락 하시어 열반락을 이루소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좋은 인연은 복이라 하고 나쁜 인연은 화라고 합니다. 초년에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복이 있다고 하고, 말년에 자식을 잘 두면 자식복이 있다 하고, 중간에 처를 잘 만나면 처복이 있다, 남편 잘 만나면 남편복이 있다 그래요. 가는 데 마다 돈이 생기면 재복이 많다,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 많다, 어떤 사람은 매일 얻어맞고 매복이 많아서 그렇다고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죽어서 가는 명복이 있어야 됩니다.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자비보시인데 자비심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데 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하고, 받으려면 인욕정진을 해야 합니다. 또 받은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완수하면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좀 더 크게 복을 지으려고 하면 10바라밀을 해야 하고요. 10바라밀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하는, 남이 따를 수 없는 방편 ·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력도 커야하고, 힘도 있어야 해요. 법력이 있고 도력이 있어야지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6바라밀의 지혜는 관조바라밀이라고 하고, 10바라밀의 지혜는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둘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혜가 있어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 중지는 화합이라고 합니다.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선원이 부처님 근본정신을 구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 크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대행 스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한 혜원 스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자연스러운 것이 잘사는 것입니다. 삼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잘 사는 법이 팔정도, 복스럽게 잘사는 법이 6바라밀 · 10바라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법인 육화경행(六和敬行)이 있죠. 한마음선원의 육화문중이 이를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 모두 결국 화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죠. 그러려면 남의 허물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일만 해야 해요. 우리 모두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니 모쪼록 여러분들이 혜원 스님처럼 훌륭한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추도사

누구나 붓다로 섬긴 下心의 표상

연자당(蓮子堂) 혜원(慧圓) 스님. 8월의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길 없는 길을 지나 이제 열반언덕에 이르시렵니까? 가고 옴이 따로 없다 하였지만, 원적에 드시니 바람조차 머물러 먹먹한 심정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본래 한 마음 그 자리는 생멸(生滅)이 다한 열반의 자리요, 한 마음 또한 체(體)가 없기에 거래가 자유롭고 활달하기만 합니다. 이제 생멸이 다한 가운데 고요한 열반락(涅槃樂)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평소의 말씀은 이미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 맡기고 가셨으니 떠난 것도 아니요 보낸 것도 아니니, 후학과 불자 모두는 항상 스님의 품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보여준 모든 솔선(率先)과 수범(垂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의 깊은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로 삼으셨기에, 스님의 지나온 걸음걸음이 대중 모두에게는 다시 큰 스승을 만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생을 '참 나'를 찾아 대화를 나누셨던 정진의 모습 그대로, 어린이로부터 학생, 청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아끼셨으니 이 또한 불자 모두의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붓다, 청소년 붓다, 청년 붓다, 합창하는 붓다, 법형제 붓다, 봉사하는 붓다 모두가 활기찼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모두를 본래 붓다로 여기고 붓다처럼 섬기고 존중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안락은 그대로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혜원 스님,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으나 마음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으셨으니, 현시대의 불자들이 그 가르침을 표상(表象)으로 삼습니다. '몸은 심부름꾼이자 참 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말씀처럼 후학들은 정진의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과 시름도 없는 한마음 상적광토(常寂光土)로 가셨사오니, 적멸의 기쁨 누리시다가 오래 머무시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음 주인공이 되었는지 경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를 이어가는 미래의 종교로 발전하고, 한마음 세상이 널리 펼쳐지며, 우리 모두 주인공답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소서.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영결사

마음공부 선풍 중심 역할

무더위가 치성했던 여름의 끝에서 스님의 원적을 접하고 황망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국비구니회의 부회장을 맡으신 때가 오래지 않은 일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스님의 부음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법이 공하고 제행이 무상하다는 크나큰 진리의 흐름 속에 우리 모두가 서 있지만 스님 생전에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 봄에 불교계의 크나큰 동력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한마음선원이 일으킨 마음공부의 선풍은 단연 앞서가는 교화로 불교계를 선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사들과 젊은 불자들의 신행 활동은 종교인들이 줄어드는 현 시대에 타 종교에서조차 모범이 되었으며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빠짐없이 지원을 베풀고 배려해주신 스님의 뜻이 있었으니 가신 후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은사스님이신 대행선사의 맏상좌로서 백오십여 명이나 되는 사제 스님들을 배출해 내는 오랜 기간동안 쉼 없이 그들의 수행 정진을 외호해 오느라 자신의 영달을 생각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척박한 외국에서의 포교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스물 다섯 지역에 지원을 내는 동안 온갖 신고를 겪은 그 과정은 어떠하셨으며 그 어려움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내세움도 없이 걸어간 스님의 묵묵한 기상은 남은 이들의 가슴에 보살행을 실천한 모범이 되어주시니 그 빈 자리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스님 법체는 계시지 않지만 스님이 수호해오신 이 장엄한 도량은 수많은 공부인들을 배출해 내는 정사가 되어 미래 공부인들에게 영원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연자당 혜원스님! 속환사바 하시어 한 줄기 빛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육문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조 사

달빛처럼 맑고 깨끗하신 분

연자당 혜원스님! 이렇게 가시다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눈앞이 캄캄합니다.

연꽃같이 맑고 달빛처럼 은은하신 혜원스님! 위로는 은사 대행스님의 날카로운 채찍을 받으며 찰나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시며, 아래로는 사제들을 보살핌이 맏형으로서의 애정으로 감싸며 동체대비의 구도보살의 화신으로 오늘날 한마음선원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온 연자당 혜원 스님!

국내와 해외의 지원이 스님의 땀방울 베이지 않은 곳 없고 스님의 손길 스치지 않은 곳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스승의 뜻을 받들고 아우들의 바른 신의를 보살펴주고 다독거려주며 법형제들의 신념과 신행을 통한 우의를 다지며 불법의 중흥과 자비보살의 생활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아오신 연자당 혜원 스님!

당신의 건강을 백분의 일이라도 살피셨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가시지는 않았을 것을….

연자당 혜원 스님! 큰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가꾸어 온 과학원, 문화원, 합창단, 학생회, 청년회, 어린이회, 한마음 법형제들을 이렇게 무심히 버려두고 홀홀히 떠나시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한마음선원을 넘어 종단의 교육 포교 사회에도 지대한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혜원스님! 이미 원적에 드신 스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오열한다고 돌아오실 수도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헌 옷 던져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속히 오셔서 다시 법형제 되어 못 다한 불사 원만히 이루는 원력 다 하시기 바랍니다.

흰구름 청산을 지나가도
그대로 청산이요.
한마음 밝은 지혜 달빛 되어 비추는데
안양천 연꽃 향기 태허공이 충만하리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조 사

한국불교 포교 밑거름 돼주셔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을 가슴깊이 애도합니다. 1990년부터 한국 도심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한마음선원의 주지와 더불어 제 13대 중앙종회의원, 제 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스님께서는 모든 불자들의 높으신 스승이자 동기셨습니다.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진행 해오신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생활 속 수행방법 등 실제로 많은 불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한발 더 앞선 포교를 통해 한국 불교의 큰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스님의 원적을 가슴깊이 애도하며 한없는 그리움으로 스님의 공덕을 다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가시는 길 부디 편하시길 두 손 모아 분향 올립니다.



이기흥 조계종 전국 · 중앙신도회장

'자비심' 지역사회 등불로 남아

오늘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을 60만 안양 시민과 함께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지난 4월 뵈었을 때 온화하고 인자하신 미소가 아직도 생생한데, 갑작스런 비보를 접하게 되니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기둥이자 우리 안양시의 진정한 등불이셨습니다. 사바중생들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춰주셨던 아름다운 발자취는 우리 안양 시민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스님을 그리워하고 애타는 마음을, 다음의 인연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리는 심정, 참으로 무겁고 애통하지만 스님의 고결한 뜻이 지역사회에서 자비와 선으로 이어지고 60만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안양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필운 안양 시장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오신 스님의 뜻 받들어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와 상대를 나누지 않으며 실천하는 정진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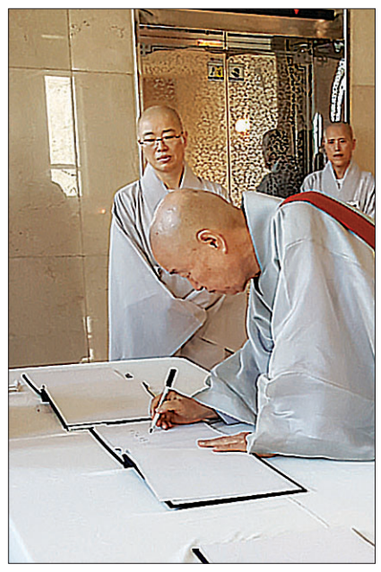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신도회

연꽃처럼 살다 가신 스승이자 참수행자

蓮子堂 慧圓 스님 行狀

1938 일본 요코하마에서 나신 후 8세에 부친의 본가 경북 고령으로 이주
1981 대행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92 한마음선원 주지 취임 후 선사의 자비 원력을 받들어 자리이타의 행원력으로 생활 참선 수행을 선도
2002~2006 제13대 중앙종회의원
2011~2015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2012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2017 8월 21일, 법랍 37세 세수 80세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입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1일 오후 9시경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찾아 가장 먼저 조문하고, 선원 스님들을 만나 혜원 스님과의 인연담도 전했다.


성우 스님은 8월 22일 이른 아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문도들을 위로했다.

각계 인사 조문 애도

한마음선원의 기둥이었던 혜원 스님의 원적 소식에 전국 한마음선원 신도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1일 오후 9시경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아 가장 먼저 조문했다. 스님은 일정을 마치고 주석처로 이동하던 중 부음을 듣고 바로 한마음선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분향하며 조의를 표했으며, 조문 직후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혜도 스님 등 선원 대중 스님들에게 은사스님과 주지 스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길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사찰법인으로는 종단에서 가장 활성화 된 곳이다. 모두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잘 갖춰있기 때문"이라며 "대행 선사 제자 스님들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다. 사형 사제 스님들이 모두 합심해 대행 선사와 주지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혜원 스님과의 인연담도 풀어놨다. "중앙종회의장 당시 혜원 스님께서 종회의원으로 활동하셨다"고 술회한 자승 스님은 "삼막사 주지를 지낸 바 있어 한마음선원과는 인연이 깊어 애정이 각별하다. 특히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대행 스님이 자주 삼막사 아래쪽에 산책을 오셨다"고 회고했다.

이튿날에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과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들이 대거 분향소를 찾았다.

성우 스님은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이사장 혜수 스님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성우 스님은 "어른이 계실 때는 정월에 세배하러 갈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내가 나이 들어 이제는 어른 스님이 안 계시니 너무 허전하다. 이사장 스님도 이제 내 말을 알게 될 것"이라며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오라"고 위로했다.

이어 "BTN불교TV 발전에 한마음선원과 혜원 스님이 많은 역할을 했다. 선원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선원 대중 스님들이 모두 마음공부를 잘 하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혜거 스님은 '허심자유 각해일륜(虛心自遊 覺海日輪)'이라는 만장을 남겼다. 혜거 스님은 "혜원 스님은 자기 마음을 내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스님이었다"면서 "대행 스님의 큰 원력을 가장 잘 받들고, 어른을 잘 모셨다. 특히 도량불사에도 많은 역할을 해 잊기 힘들 만큼 좋은 스님으로 기억한다"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회고했다.

혜거 스님은 또 "'허심자유'는 상(相)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운 채 살았던 혜원 스님을 위해 쓴 것"이라며 만장 의미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대행 스님의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선원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깊은 최기영 대목장도 같은 시각 분향소를 방문했다. 최 목장은 "평소 혜원 스님께 드리려고 발우를 차에 싣고 다녔는데 여태껏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7합발우를 한마음선원에 전달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분향소를 찾은 불자들은 혜원 스님을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회고했다.

박강숙 신도는 "저에게는 살아가는 데 법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셨다. 대행 스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혜원 스님은 어머니나 다름없었다"면서 "항상 실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 스님께서 남겨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보살은 "입적하신 게 믿기지 않는다. 처음 소식을 듣고 한동안 정신이 멍했다"며 "혜원 스님은 친정엄마 같은 스승이셨다. '돌에 피가 밸 듯이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前포교부장 송묵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본각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이 방문해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내가 본 혜원 스님



이 시대 지장보살 화신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

저와 한마음선원 주지인 혜원 스님의 인연은 28년 정도 됩니다. 제가 1980년 총무원 교무국장 소임을 볼 때 처음 뵈었죠. 그때 총무원을 찾아오셔서 인연이 시작됐고, 2012년 포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혜원 스님은 포교를 향한 대단한 원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포교원이 다양한 포교활동을 펼치는 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할 분께서 돌아가시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혜원 스님을 이 시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혜원 스님만큼 오랫동안 상(相)을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교하신 분은 참 드뭅니다. 어찌 보면 포교를 함에 있어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을 늘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선뜻 도와주기 쉽지 않을 텐데도, 스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여 도닥였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호소할까'라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토록 자비로웠던 스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한마음으로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스님 말씀도 떠올려봅니다. 이 시대 비구니 스님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사셨던 혜원 스님. 이제 다시는 두 눈으로 스님을 만날 순 없지만 스님이 보여주신 원력과 가르침은 후대에 아낌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2600여 년 동안 흘러 후대에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리의 수승함 때문입니다. 이처럼 혜원 스님이 사회를 위해 보이셨던 큰 원력은 수많은 중생들을 위한 하나의 사표(師表)로 남을 것이고, 한마음선원 대중은 이를 따라 사회를 맑히는 법향을 피워낼 것이라 믿습니다.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님들도 당장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 어떤 방향으로 불교를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포교 일선에서 큰 임무를 맡아온 공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 같이 넓은 품으로 대중을 섭수하신 혜원 스님처럼 대중 여러분이 사회에 법향을 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써주십시오. 혜원 스님께서도 열반락을 누리시다가 사바세계로 돌아와 늘 불자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자비롭고 온화한 어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주지스님하고 뵙기 전 창건주이신 대행 큰스님을 더 먼저 뵙고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대행 스님을 뵌 뒤 주지스님과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을 뵀습니다. 제가 봉선사 주지를 2001년도쯤 했는데 당시 제게 맡겨진 소임은 '팔만대장경 완간 회향법회'를 장충체육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는데 '해야겠다' 마음먹고 제일 처음에 온 곳이 한마음선원입니다. 대행 큰스님을 뵙고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하셔서 "돈도 필요하고 인원 동원도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혜수 스님을 부르셨습니다. 혜수 스님이 오시니까 "돈을 5000만원 드려라. 그리고 사람 동원 몇 명 하는데 혜수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셨죠. 이게 가장 제가 은혜 입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은 마치 속가의 누님처럼 아주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자비스러우셨죠. 또 말씀이나 성품이 온화한 어른이셔서, 누가 와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차도 한 잔 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스님을 직접 뵙기도 했죠. 스님은 제가 있는 불암사에 오시거나, 또 명절 때가 되면 본인이 직접 못 오셔도 사제 스님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참 안식이 되었습니다. 함께 얘기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죠. 다른 신도님들도 그렇게 대하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항상 유달리 사랑을 주셔서 제가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상심이 클 신도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과 스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법으로써 부처님 계행으로써 스승을 삼고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음선원을 창건하신 대행 큰스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질적으로 한마음선원이 세계적으로 · 국내적으로 지원이 있지만, 대행 큰스님의 원력과 신념,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또 혜수 스님이 큰스님에게 법을 받고 사랑도 듬뿍 받았기 때문에 혜수 스님을 따라 수행을 잘 하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혜원 스님의 평소 말씀은 한마음선원 대중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계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혜원 스님을 따라 대중이 한마음도량을 잘 가꿔가길 바랍니다.



흐트러짐 없는 참 수행자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

주지스님은 제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할 때 같이 활동하셔서 종단 살림과 이부중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주지스님은 "한마음선원이 자꾸 커지는데 이에 대한 체제, 스님들을 통솔하지 못하는 힘, 대행 큰스님의 뜻을 본인은 살리지 못해서 그게 늘 안타깝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전화를 드리면 편안하게 받으시고,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주지스님을 존경하는 점은 같은 승단에 사형 사제나 어려움이 많음에도 늘 "다 같이 잘해야죠"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난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큰스님 모시고 살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라며 은사스님을 향한 딸 같은 애정을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마음선원 스님들을 보면 대행 스님의 물결 같은 가르침이 딱 표시가 납니다.

입적하신 혜원 스님의 경우에는 절대 선두에 서거나 각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정 이 시대에 여러 대중을 끌고 가는 처세가 참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항상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손 · 어깨를 만져주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하시는 이심전심. 스님은 승단에 오셔서 위로는 큰스님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많은 사제들을 보듬어야 되는 남보다도 특별한 인생이자 승려로서의 행장을 사셨습니다. "더 아프면 사제들에게 짐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오면 대접하셨습니다. 한마음선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행 큰스님은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주지스님은 살림살이를 하시며 그 속에서 대중을 통솔하고 같이 묻어나는, 실제적인 승려로서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상 위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어른으로서 할 수 있지만, 대중과 같이 모나지 않게 근 200명의 스님을 그림자처럼 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주지스님은 다 소화해내시고, 또 누구에게나 지도자적인 모습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이외에도 개성이 강한 스님들에게 대행 큰스님의 따듯한 모습을 전달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는데 참 잘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출가해서 한 스님 밑에서 절대 나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부처님의 아난존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아난존자의 역할을 다 해내시고 나서 가셨죠. 참 멋진 분이에요. 또 항상 단정하시고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갈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양말 하나라도 깔끔하게요.



깊고 깊은 한마음 가운데 빛으로 함께하소서

한마음선원 출판부 · 한마음과학원 · 한마음국제문화원 · 한마음저널 · 한마음미디어실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감사의 말씀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연자당蓮子堂 혜원慧圓스님 육화문중장六和門中葬을
여법히 봉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육화문중 어른 스님들,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마음선원 문도들은 사형님의 뜻을 이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마음선원 본원 · 지원 사부대중 합장 –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안양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 국내지원

광명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영평동)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동삼동)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치평동)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천곡동)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 5길 29(포남동)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도천동)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 266번길 31-1(상동)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 국외지원

뉴욕지원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워싱턴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로스엔젤레스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90016, USA
시카고지원	7852 N.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캐나다토론토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Miro 1575, CABA, C1406CVE, Rep. Argentina
뚜꾸만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an, T4107CHN, Republica Argentina
독일지원	Broicherdorf Str.102, 41564 Kaarst, Germany
태국지원	86/1 soi4 Ekamai,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브라질상파울로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01127-000-Brasil

